

유해약물 (마약류) 예방교육 자료



유해약물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8,050명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고, 이 중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도 313명으로 전년 대비 31.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징검다리의 기간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급격한 감정의 변화, 반항과 방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단 한 번의 약물 경험은 강한 중독으로 빠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높은 비용과 구입경로를 알기 어려워 청소년들이 유해약물(마약류)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 없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더불어 유해약물(마약류) 예방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약물(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해 도움 자료집을 개발하였으니, 학교 일선의 교사들이 본 자료를 활용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자료 개발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과 감수를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1.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목 차

Chapter

01 중학교 1차시 - 유해약물과 신체적 건강

01

1. 교수·학습 과정안	3
2. 학생용 자료	5
2-1. 활동지-1	5
2-2. 활동지-2	6
3. 교사용 참고자료	7
3-1. 용어 정의	7
3-2. 유해약물 사용 시 나타나는 문제	7
3-3. 유해약물별 신체에 미치는 영향	9
3-4.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10
3-5. 청소년이 유해약물에 빠지는 요인	10
3-6. 유해약물 중독 단계와 약물중독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12
3-7. 영상자료	13
3-8.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3

Chapter

02 중학교 2차시 - 유해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 대처

14

1. 교수·학습 과정안	14
2. 학생용 자료	17
2-1. 활동지	17
2-2. 읽기자료 1 - 아편에 중독된 청나라 마지막 황후의 비참한 최후	19
2-3. 읽기자료 2 -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21

1. 교수·학습 과정안.....	25
2. 학생용 자료.....	27
2-1. 활동지.....	27
2-2. 읽기자료 1 - 청소년에게 마약 대응으로 둔갑한 진통제 ‘펜타닐 패치’.....	28
2-3. 읽기자료 2 - “다이어트약 3개월 이상 못 먹는다” 오남용하면 경찰조사까지.....	29
3. 교사용 참고자료.....	30
3-1. 마약중독의 원인.....	30
3-2. 마약중독과 뇌.....	30
3-3.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32

1. 교수·학습 과정안.....	33
2. 학생용 자료.....	36
2-1. 활동지.....	36
2-2. 읽기자료 1 - 한국 마약 중독자 급증... 마약 반입 수법 다양해져.....	38
2-3. 읽기자료 2 - 아편에 중독된 청나라 마지막 황후의 비참한 최후.....	40
2-4. 읽기자료 3 -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42
2-5. 영상자료 1 -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43
2-6. 영상자료 2 - 위험한 마약 사전.....	44
2-7. 영상자료 3 - 중독 치료 전문가가 말하는 ‘마약’.....	44
2-8. 영상자료 4 -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은 자살 시도’, 복합 치료 필요.....	45
2-9. 영상자료 5 - ‘마약의 끝이 죽음인 이유, 중독자들의 생생한 고백’.....	45
2-10. 영상자료 6 - 마약 중독자 부부의 모습.....	46
2-11. 영상자료 7 - 중국, 마약과의 전쟁: 백색공포의 희생자들.....	46
2-12. 영상자료 8 - 마약사범, 톨게이트서 경찰과 총격전, 中 현장 포착.....	47
2-13. 영상자료 9 -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피의 아보카도.....	47
2-14. 영상자료 10 -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이 마약 소굴로, 한인사회 위협.....	47

3. 교사용 참고자료	48
3-1. 그림자료 1 - 우표 및 엽서	48
3-2. 생각자료 1 - 마약화된 우리 언어	49
3-3. 생각자료 2 - ‘마약’의 역사와 그 속의 과학적 사실을 파헤쳐 본다	50
3-4. 생각자료 3 - 한국 마약청정국 그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50

Chapter

05 부록 - 마약류 관련 교사용 참고자료

53

1. 마약의 정의	55
2.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55
3. 현행법상 처벌 규정	78
4.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79
5.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도움 기관	95
6. 약물중독 예방 Q&A	96

본 자료의 내용 체계표

가. 중학교

영역	교육 목표	내용 요소
유해약물과 신체적 건강	- 유해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 - 유해약물 사용 위험요인을 알고 유해약물 권유 상황에서 거절법을 제시할 수 있다.	유해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약물 사용의 위험요인 유해약물 권유에 대한 거절법
유해약물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른 대처	유해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유해약물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유해약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유해약물이 사용에 대한 대처법

나. 고등학교

영역	교육 목표	내용 요소
마약류와 중독	마약류의 종류를 알고 중독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마약류 오남용 실태 마약중독의 원인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른 대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마약류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 사용에 대한 대처법

※ 본 자료의 각 차시별 내용 요소는 보건 교과서 및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약물·사이버 중독 영역의 요소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본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본 자료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약물·사이버 중독 영역 중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각 학생의 개인차를 살피 단순히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각 마약류의 실제적인 구입경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지양함.)

중학교 교수·학습자료

1차시 - 유해약물과 신체적 건강

2차시 - 유해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대처



01

중학교 1차시 - 유해약물과 신체적 건강

학습 목표	• 유해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 • 유해약물 사용 위험요인을 알고 유해약물 권유 상황에서 거절법을 제시할 수 있다.	차시	1/2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다음 사진의 공통점 찾기 • 교사는 술,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칼라풍선) 등을 제시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 교사는 제시하는 자료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에 포함됨을 인지시킨다. • PPT	
전개	○ [용어 정리하기] • 교사는 PPT를 활용하여 용어를 정리한다. - 약물: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 등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 - 약물 오용: 약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약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사용하는 것 - 약물남용: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 인식, 행동 등을 변화시키고 흥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 - 청소년 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청소년보호법’에 따름 ○ [설명하기] 유해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 교사는 유해약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알게 한다.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 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알아보기] 유해약물에 빠지게 되는 요인 • 교사는 [활동지-1]로 유해약물에 빠지게 되는 요인을 파악하게 한다. - 약물사용 효과에 대한 기대 -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학교생활의 문제, 학습 부진 - 이성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반항)	• PPT • 약물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줌.	
		• 활동지를 이용하여 유해약물 노출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개선할 점을 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한다.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약물중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 가족이나 어른들의(연예인 등) 약물 문제 모방 ㉡ 약물사용에 대한 관대한 규범 ㉢ 소원하거나 문제 있는 가족 관계 ㉣ 약물 접근의 용이성: 인터넷, SNS 활용, 마약류 불법 유통	
전개	○ [설명하기] 유해약물 유혹 이기는 방법 익히기 •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유해약물 권유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약물의 위험성을 항상 기억한다. - 호기심을 긍정적인 부분에 둔다. - 약물사용에 대한 규범을 강화한다. -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감소시킨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운다. -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	• 유해약물 유혹 시 거절법에 대하여 안내함.
정리	○ [다짐하기] 유해약물 거절 다짐하기 • 교사는 [활동지 -2]으로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유해약물 거절을 다짐하도록 지도한다. • 가장 의미 있는 발표를 한 학생의 문장을 칠판에 적어주고 다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며 약물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 [차시 예고] • 차시 내용(유해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 대처)에 대해 안내한다.	• 활동지는 포스트잇으로 대체 가능함.

활동지-1

학습 유형	학습 주제	
개별 학습	유해약물과 신체적 건강	

() 학년 () 반 이름 ()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유해약물: 술,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본드, 부탄가스, 칼라풍선) 등

○ 유해약물을 권유하는 듯한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광고 내용은?

↳

○ 유해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본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

○ 우리 주변에서 유해약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알고 있는 곳은?

↳

○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다면 주로 모이는 곳은?

↳

 [정리하기] 우리 주변에서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적어보고,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활동지-2

학습 유형	학습 주제	
개별 학습	유해약물과 신체적 건강	

() 학년 () 반 이름 ()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적고 유해약물을 거절하는 다짐을 표현해 봅시다.

유해약물은

그렇기에 나는

다짐 한다.



교사용 참고자료



▶ 용어 정리

- **약물** :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 **약물오용** :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제대로 또는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약물남용** :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 **약물의존** : 마약류 및 약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사용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사용자가 마약류 및 약물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약물중독** : 약물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조절 불능,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심한 심리적 육체적 의존상태라 말할 수 있다.
-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4

▶ 유해약물 사용 시 나타나는 문제

- **신체적 문제**
 - 손발의 떨림, 발한, 불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장기적으로 마약을 남용하게 되면 뇌에 영구적 손상을 일으켜 정신병적 증상 및 조기 치매로 이어진다.
- 과량 사용 시 협심증, 심장 부정맥, 간질, 혼수 등의 치명적인 상태로 될 수 있다.
- 환각 상태에서 타살 및 자살을 할 수 있으며, 주사기 사용 시 간염이나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물을 심하게 갈망하는 의존성이 생긴다.
- 약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함에 따라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는 내성이 생긴다.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위궤양 빈혈, 간 기능 저하,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면역기능의 저하로 작은 염증도 심각해지고 회복이 늦어진다.

[표] 약물 부작용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도취감, 불면증	환청	망상

○ 정신적 문제

- 성격 변화, 우울증, 불안, 발작, 의심증, 피해망상 등이 발생한다.

○ 사회적 문제

- 중독자들은 피해망상, 환각,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
- 약물남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 유해약물별 신체에 미치는 영향

구분	신체에 미치는 영향
	•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톨루엔은 안신경에 영향을 주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많은 환각흡입물질은 뇌세포를 싸고 있는 마이엘린 보호막을 용해시켜 뇌세포를 죽인다. •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
	•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 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흡연은 이를 누렇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
	•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케 할 수도 있다(급성흡입 사망증후군). •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 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 발작이 올 수 있다. •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를 흘러 들어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 흡입제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 흡입제의 화합물은 간 손상과 연결되어 있다. • 스테로이드는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 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 흡입제는 신장 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 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톨루엔을 함유한 흡입제는 혈액 속 산성의 양을 조절하는 신장의 능력을 손상시킨다. • 엑스터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
	•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랑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 필로폰은 피부 아래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각 증상을 유발하여 피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농양이 온다.
	• 흡입제는 뼈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 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 청소년기에는 모든 경험이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에 성인보다 급속도로 중독에 이르게 된다.
- 청소년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므로 유해물질 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성인 중독자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 청소년들은 치사량의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며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명적인 사고, 자살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 심리적으로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중간적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환각상태에서는 쉽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난폭한 행위나 공격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청소년은 쉽게 이 약물, 저 약물, 복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된다.

▶▶ 청소년이 유해약물에 빠지는 요인

○ 이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요인

청소년 시기의 유해약물 중독의 원인을 약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차이에 강조점을 두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은 상호 연계되어 약물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 생물학적 요인

- 의존성, 재강화(reinforcement) 야기, 내성, 금단증상: 자주 남용되는 약물의 특성으로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지내기 어렵게 된다.

○ 심리학적 요인

- 잘못된 인지 및 태도 요인: 약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약물사용이 초래할 위험성과 폐해보다 약물사용 직후 느끼는 긍정적 감정과 결과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약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나 부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용될 확률이 낮다.
- 자존심과 자기확신성 부족, 자기만족감과 개인적 조절능력 저하: 사회적 확신감이 부족하다 보니 공격적, 충동적이면서도 늘 불안해한다. 청소년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이 덜 성숙하여 적응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지지를 받아야 할 가정, 학교, 사회 등으로부터 좌절과 어려움을 맞볼 때는 약물을 시작하게 되는 더 큰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 사회학적 요인

- 가정 요인: 가족은 청소년들이 도덕적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적합한 행위유형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 및 경제 수준, 부모와 대화시간 및 대화형태, 가정불화, 부모가 이미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의 상호작용 실패(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 사랑이 부족하다는 인식, 일관적이지 못한 가족 규범) 등이 청소년들을 비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학교 요인: 학교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하고 사회적, 정서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행동과 기대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친구 요인: 청소년기 또래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친밀감은 청소년에게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얻고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약물남용을 하게 된다. 즉 약물남용의 요인은 약물을 복용한 친구들의 압력,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 요인: 약물 구입 및 사용 장소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게 되며 빈곤, 사회적 해체, 절망감,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유혹하는 대중매체 등이 원인이 된다. 청소년 약물사용과 연관되는 큰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즉, 시험, 이사, 부모의 이혼, 친족이나 친구의 사망 등의 생활사건에 작용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청소년은 불안하고 소외감이 강해 음주나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요인

- 호기심과 사회적 압박(특히, 또래집단에 쉽게 영향을 받는 10대, 청소년들 위험)
- 유해약물 사용 효과에 대한 기대
 -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강렬한 쾌감, 약물 종류에 따른 다양한 변화 경험)
 -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 불쾌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학업, 스포츠 경기력 등을 향상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 기성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반항)
-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 약물을 하는 또래(동료)의 유혹
 - 가족이나 어른들의(연예인 등) 약물 문제 모방
 - 약물사용에 대한 관대한 규범
 - 소원하거나 문제 있는 가족 관계
 - 약물 접근 용이성: 클럽 내 유통, 인터넷, 텔레그램, 트위터,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 광고·유통
(주문-결제-배송 원스톱 환경 구축: SNS에서 주문→가상화폐로 결제→국제우편으로 배송)

▶ 유해약물 중독 단계와 유해약물 권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 유해약물 중독 단계

[표] 약물중독 단계

실험적 사용단계	습관적 사용단계	심화적 사용단계	강박적 사용단계
호기심으로 단기간에 적은 약물을 사용함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가끔 사용함	일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주기적으로 남용함	약물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약을 자주 장기간 사용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상태

※ 반드시 단계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실험적 사용단계에서 강박적 사용단계로 이동 가능)

○ 유해약물 권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 약물의 위험성을 항상 기억한다.
- 호기심을 긍정적인 부분에 둔다.
- 약물사용에 대한 규범을 강화한다.
-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감소시킨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운다.
 - 충분한 수면과 영양 공급
 - 규칙적인 생활 방식 유지
- 약물중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
 - 적절한 자기 조절 능력 키우기
 - 부모의 관심과 지지
 -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 약물 유혹 시 거절법 익혀두기
 - 긍정적인 대인관계
 - 학교 약물 예방 규정 정비
 - 주변 자원 마련 및 지원: 청소년의 여가 생활 장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등

○ 유해약물 권유 유혹 시 거절법

- 단호하게 거절하기: 약물을 거절하는 것이지, 친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친구라면 약물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
 - “나는 마약을 싫어해.”
 - “나는 유해약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돼!”
- 설득하기: 마약류는 청소년에게 노출되면 어른보다 더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점,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해로운 점을 이야기해주며 설득해본다.
 - “유해약물은 우리 나이에 하면 세포나 장기에 더 해롭대.”
 - “유해약물에는 뇌를 망가뜨리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
 -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중독되어 끊기가 어렵다고 해.”
- 대안 제시하기: 유해약물 대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 “우리 축구 하러 갈까?”
 - “우리 새로 생긴 떡볶이집에 가볼까?”
- 대화 주제 바꾸기: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며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꾼다.
 - “너 이번에 새로 나온 ○○○ 뮤비 봤어?”
 - “야, 너 어제 뭐 하고 놀았어?”

▶▶ 영상자료

- 성장기에 치명적인 약물중독, 어떻게 예방할까?
 뇌부자들(2021.5.28.) <https://youtu.be/CGug9q1kGDk>(13분27초)
-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YTN 사이언스(2017.6.28.) <https://youtu.be/2ryt6Obl9nE>(2분6초)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청소년을 위한 중독 예방 지침서, 2013.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청소년 약물 스스로 알고 물리치자, 2011.
- 안미하, 미국 청소년 약물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대한민국의학한림원(<https://blog.naver.com>)

02

중학교 2차시 - 유해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 대처

학습 목표	역사 속 사례를 통해 유해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차시	2/2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 [선수학습 확인] 약물사용·약물오용·약물남용의 뜻 - 교사는 약물사용, 약물오용, 약물남용 등의 용어에 관해 질문하고 그 뜻을 비교하여 정리해준다. <table> <tr> <th>내용</th> <th>약물사용</th> <th>약물오용</th> <th>약물남용</th> </tr> <tr> <td>치료적 기능</td> <td>있음</td> <td>없음</td> <td>없음</td> </tr> <tr> <td>약물의존성</td> <td>없음</td> <td>있음</td> <td>매우 큼</td> </tr> <tr> <td>신체적 기능장애</td> <td>극히 적음</td> <td>있음</td> <td>매우 큼</td> </tr> <tr> <td>사회적 기능장애</td> <td>없음</td> <td>있음</td> <td>매우 큼</td> </tr> </table> ○ [동기유발]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 교사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의 개념에 관해 질문하고, 그 뜻을 정리해준다.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을 말함.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 유해약물의 기준(3가지) ①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②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③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청소년이 구입해서는 안 되는 유해약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폰선 등	내용	약물사용	약물오용	약물남용	치료적 기능	있음	없음	없음	약물의존성	없음	있음	매우 큼	신체적 기능장애	극히 적음	있음	매우 큼	사회적 기능장애	없음	있음	매우 큼	자료 및 유의점 - 활동지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용어의 뜻을 직접 학생들이 찾아보게 할 수도 있고, 교사가 문답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내용	약물사용	약물오용	약물남용																			
치료적 기능	있음	없음	없음																			
약물의존성	없음	있음	매우 큼																			
신체적 기능장애	극히 적음	있음	매우 큼																			
사회적 기능장애	없음	있음	매우 큼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개	○ [토의하기 ①] 역사 속 유해악물이 개인에 미친 영향 교사는 학생들이 ‘읽기자료’를 읽고 각 질문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 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써보게 한다. • [읽기자료 1] 청나라 마지막 황후가 아편에 중독되어 비참하게 죽어간 사연은? ◦ 청나라가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통해 잃은 것은? ➡ 아편전쟁 패배의 결과로 난징조약, 텐진조약, 베이징조약을 체결해 막대한 배상금 지불, 강제 개항, 홍콩을 영국에,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함.(결국 청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짐.) ◦ 청나라 마지막 황후인 완용 황후가 아편에 중독된 이유는? ➡ 허례 의식과 예식으로 가득 차 있던 자금성 생활 중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겪으면서 아편을 시작하였고, 남편 부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텐진에서 본격적으로 아편에 빠져들게 됨. ◦ 아편에 중독된 이후 완용 황후의 삶은 어떠했는가? ➡ 불행한 결혼생활, 호위병과 간통하여 사생아 출산, 일본 군관과 사통하여 사생아 출산, 지린성 독방에 감금되어 구경거리가 되었고, 결국 영양실조와 아편 금단증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함. ◦ 완용 황후의 삶에 대한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보자. ➡ 아편과 같은 마약중독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마약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읽기자료]를 활동지와 함께 미리 배부함. • [읽기자료 1] 아편에 중독된 청나라 마지막 황후의 비참한 최후
	○ [토의하기 ②] 역사 속 유해악물이 사회에 미친 영향 교사는 학생들이 ‘읽기자료’를 읽고 각 질문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 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써보게 한다. • [읽기자료 2]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 청나라 말기(188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에 아편 사용 실태는 어떠했는가? ➡ 1880년대 4천만 명(인구의 10%)이 흡연자였고, 2천만 명(인구의 5%)이 중독자였으며, 1900년대 초반 상해에만 아편굴이 2천 개 이상 있었음. ◦ 청나라 말기에 아편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 아편전쟁 후 서구 열강들이 무역에서 흑자를 보기 위해 대대적으로 아편을 유통함. ㉡ 상류층에서 멋으로 피웠고, 이를 동경한 평민들에 의해	• [읽기자료 2]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널리 퍼짐. ㉔ 아편은 중독되어도 몇 년 내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음. ㉕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병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오인해 남용함. (중독자의 70%가 약으로 오인해 사용함.) ㉖ 아편 금지령이 신해혁명과 군벌들의 난립으로 중단됨. ㉗ 척박한 토지에 사는 농민들은 수입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함. 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편을 유통함.	
정리	○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대처 법]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써보도록 지도한다. ◦ 유해약물 사용의 유혹을 받거나 주변 사람에게서 유해약물 사용을 권유받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약 사용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선생님이나 주변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 [유해약물 근절 서약서 작성] 교사는 학생들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후 완옹의 삶을 통해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깨닫고, 유해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지도한다. ◦ 다음의 서약서를 큰소리로 읽고 유해약물 근절에 대한 자기 다짐을 새롭게 합시다. 나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하나, 나는 유해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유해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권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마약을 절대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	• 활동지 • 1차시에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함. • 서약서 작성 전에 교육용 영상 (경남교육청 제작)을 먼저 시청한 후 서약서 작성 활동을 진행해도 좋음.

- 아편에 중독된 이후 완용 황후의 삶은 어떠했는가?



- 완용 황후의 삶에 대한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보자.



▶▶ [토의하기 ②] 역사 속 유해약물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읽기자료’를 읽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 후 토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 [읽기자료 2]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 청나라 말기(188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에 아편 사용 실태는 어떠했는가?



- 청나라 말기에 아편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대처 법]

○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대처 법]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써보자.

- 유해약물 사용의 유혹을 받거나 주변 사람에게서 유해약물 사용을 권유받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유해약물 근절 서약서 작성하기] 아래의 서약서를 읽고 유해약물 근절에 대한 자기 다짐을 새롭게 한다.

나는 나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하나, 나는 유해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유해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권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마약을 절대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

읽기자료1

아편에 중독된 청나라 마지막 황후의 비참한 최후

중국 근대사의 치욕은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한다.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 단속에 반발하며 ‘무역항을 확대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1차 아편전쟁(1840년~1842년)을 일으켰다. 전쟁은 1842년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을 넘겨받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Ningbo,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강제로 개항시켰다.

그 이후 영국은 중국 관리가 해적선인 애로호에 달린 영국 국기를 바다에 던진 일을 구실로 삼아 모욕을 당했다며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아편전쟁(1856년~1860년)을 일으켰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텐진을 점령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텐진조약에는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개항 항구를 확대하며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텐진조약 체결 후에도 청나라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자 진격을 계속해 북경을 함락시켰다. 결국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은 끝났다. 청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아편과의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서양의 강대국들과의 아편전쟁에서는 무참하게 패배하여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식민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는 고위 관료, 지주, 상인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아편을 피웠고, 한번 아편에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아편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는 청나라의 12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의 아내인 완용 황후도 포함되었다.

완용 황후는 만주 출신으로 내무부 대신인 곽포라 영원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고 신식 학문을 익혔으나, 1922년 만 16세의 나이에 이미 망해버린 청 왕조의 황후 선발에 나가면서 완용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이미 1912년에 청나라는 신해혁명으로 인해 패망하였고, 자금성에 있는 청나라 정부는 중화민국으로부터 옛 왕조의 권위만을 인정받았고, 황제는 외국 군주의 대우를 받을 뿐이었다(대청황실 우대조건). 일상적인 허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금성 생활 속에서, 완용은 사진찍기, 추리 소설 읽기, 피아노 치기, 영어 쓰기를 즐겼다. 이때부터 완용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겪었으며, 남편인 부의의 허락을 받아 틈틈이 아편을 피우기 시작했다. 1924년 평위상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 청나라 황실 우대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금성을 점령하였다. 부의와 완용은 자금성에서 추방당하고 영국과 네덜란드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한다. 부부는 둘이서 조용히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국의 피임으로 텐진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인 일본 조계¹⁾로 간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완용은 텐진에 거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편에 의지했다.

1) 조계 :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 있었던 외국인의 거주 지역

1934년엔 일본국 괴뢰정부²⁾인 만주국의 황후 자리에도 올랐으나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의 전반생(我的前半生)>에서 부의는 당시 아내인 완용이 이미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고, 호위병인 일본 군관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나중에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아편에 더 빠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부의가 아내 완용이 아편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된 것에 격분한 나머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렸다. 이 사실을 몰랐던 완용은 자신의 오빠가 아이를 키우는 줄 알고 한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오빠에게 보냈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텐진에서 완용 황후가 초기에 피운 아편은 일본인들에 의해 공급되던 것이었고, 대청제국 황후의 아편 중독 사실은 일본인들에 의해 널리 선전, 확대되었다. 일본 첩자였던 집사는 황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일본국에 상세히 보고했다.

완용 황후는 1938년 7월부터 1년간 ‘장수를 위한 연고’라고 불렀던 아편을 740온스(약 21kg)나 흡연했는데, 그녀가 피운 아편의 양은 하루에 2온스(약 56.7g)가량으로, 중독되지 않은 흡연자에게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정권을 장악하자, 완용은 더는 원하던 아편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중국 공산당 군대가 그녀를 지린성에 있는 독방에 가두자 금단증상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 황실의 먼 친척이며 감방 동료였던 사가 히로는 완용 황후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공산당 군인들과 호기심 많은 농부가 그녀를 보려고 감방 앞에서 떠들고 웃자, 황후는 아편을 달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 댔고, 같이 수용된 죄수들조차 그녀를 조용히 시키라고 고함을 지를 정도였다. 황후는 끊임없이 구경꾼과 간수들에게 아편을 달라고 애원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금성에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을 목욕시키거나 음식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다. 감방은 그녀의 대소변과 토사물로 더럽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방의 간수들은 완용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씻기는 일은 물론, 심지어 더러운 감방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 완용 황후는 영양실조와 아편 금단증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출처: <https://blog.naver.com/sdcsh/222211204426>, 일부 수정)

2) 괴뢰정부 : 실권 없이 다른 나라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정부.

읽기자료2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중국은 왜 아편에서 벗어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을까? 우리가 아는 아편전쟁 후 1842년 난징조약을 맺으면서 ‘아편’은 중국에 공공연하게 나돌게 되었다. 당시 서구 강대국들은 무역에서 흑자를 보기 위해 아편을 공개적으로 유통하였고, 그 이후 아편은 중국인들을 중독시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전까진 맹위를 떨쳤다. 1880년대는 4천만 명이 흡연자이고, 전체 인구의 5%인 2천만 명이 ‘중독자’가 될 지경이었다. 아편 때문에 자식과 아내를 팔아버린 이야기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지에서 보는 아편굴은 실제 1900년대 초반에 상해에만 2천 개 이상 존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아편 천국이 된 것일까? 1729년에 세계 최초의 금연령이 내려진 바가 있을 정도로, 청나라 황실은 아편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중국의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멋’으로 아편을 피웠다는 데 있다. 아편은 값도 비싸고, 태우는 방법이 어려워 그 자체가 하나의 풍류를 만들어 냈다. 또한 일반 백성은 그런 상류층의 모습을 부러워해서 따라 하는 일이 많았다. 또 아편의 특성상 중독되어도 몇 년 내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도 했으며 여기에 더해 당시 잘못된 의료상식도 컸다. 당시 중국에선 아편을 병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오해하여 함부로 썼다. 아편을 피우면 초창기에는 아픈 것이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힘이 강해져서 이런 오해를 한 것이었다. 중독자의 70% 정도가 ‘약’으로 오인하고 사용했을 정도이다.

정리해보면 아편은 일단 상류층에서 멋으로 피우고, 이를 동경한 평민들에 의해 중국에 퍼져 나갔으며, 아편전쟁으로 인해 대대적인 규모로 키워졌다. 청 왕조는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1911년 일어난 신해혁명에 뒤이어 군인들이 파벌을 만들어 나라 안이 어지러워진 탓에 이를 이어갈 수 없었다. 여기에 척박한 토지에 사는 농민들은 수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귀비를 재배했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뻔뻔한 범죄 행위를 지속해나갔다.

결론적으로 중국인들은 1842년부터 1949년까지 아편의 굴레에 머물러야 했다. 아편에 취해 처자식을 팔아먹고 길가에 나앉는 이들의 사연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나랏돈은 밖으로 유출되었고, 서구 강대국들이 아편을 수출하지 않아도, 군벌을 비롯한 탐욕스러운 관리와 빈곤한 농민들에 의해 기름진 농지가 양귀비 재배장으로 바뀌는 모순을 겪어야 했다. 아편은 중국인의 심신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전체에 치명타를 가했다. 중국에 있어 1842년 난징조약 이후 100년은 ‘굴욕의 100년’이라 칭할 만한 것이다.

(출처: <https://zazak.tistory.com/1354> [세상 모든 것의 리뷰], 일부 수정)

고등학교 교수·학습자료

1차시 - 마약류와 중독

2차시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 대처



03

고등학교 1차시 - 마약류와 중독

학습 목표	• 마약류의 종류를 알고 중독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차시	1/2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생각 열기] 공통점 찾아보기 • 교사는 학생들이 그림을 보고 그림의 공통점을 찾게 하고, 우리가 다양한 것에 중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그림의 공통점을 맞추지 못하면 교사가 힌트를 주면서 답을 유도함.	
전개	○ [알아보기]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 교사는 다양한 마약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로 구분하여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한다. – 마약류의 분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 136종 ㉡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LSD, 엑스터시, 프로포폴 등 287종 ㉢ 대마: 대마초, 해시시, 대마 수지 ○ [실태 파악]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실태 •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마약 관련 기사를 읽은 후, 청소년들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읽기자료 1] 펜타닐 관련 기사 • 청소년들이 주로 오남용하는 다이어트약의 실태와 부작용을 기사와 동영상으로 확인한다. – [읽기자료 2] 다이어트약 관련 기사 – [영상자료] 식욕억제제의 부작용(PPT 활용) ○ [설명하기] 청소년기의 특성과 마약류 오남용 위험요인 및 원인 •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특징을 청소년의 정신·심리적 요인과 연결하여 제시한다. – 중독의 위험요인: 가정에서의 문제, 학교, 친구 사귀는 문제, 유해약물을 사용하는 주변인, 어린 나이에 유해약물 사용 시작, 유전, 정신건강 문제 등 –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마약중독의 원인: 기분장애, 우울, 불안, 조증,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등 ○ [설명하기] 중독과 뇌 질환 • 교사는 마약중독의 원인을 뇌의 과학적 기반을 근거로 설명하여, 마약중독은 치료해야 할 뇌 질환임을 인식시킨다. – 보상회로와 도파민, 중독과 보상회로	• PPT 자료 • 학생용 자료 • 교사용 참고자료	

학습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우리의 뇌에는 보상 행동을 담당하는 보상회로가 있음. - 보상회로의 중요 부위는 복측피개영역, 중격측좌핵, 전전두엽 피질 - 복측피개영역은 보상회로를 통해 중격측좌핵과 전전두엽 피질과 연결되며 뉴런을 통해 이들 구조에 정보를 보냄. 즉, 복측피개영역의 뉴런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중격측좌핵과 전전두엽피질로 분비됨. - 이 회로는 자연 보상뿐 아니라 약물(마약류)과 같은 인위적인 보상 자극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 기쁨, 동기부여, 감정조절, 운동 등에 관여하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기쁨과 쾌감을 느끼게 함. - 인위적 보상인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 보상보다 2~10배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고, 효과도 훨씬 오래 지속되므로 자연 보상 행동이 주던 행복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적어짐. -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 보상이 주던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삶이 단조롭고 생기가 없으며 우울하고 슬퍼짐. ○ [활동지 정리하기] • 활동지로 마약의 종류와 중독에 관하여 배운 내용을	• 교사의 설명을 듣고 활동지에 정리하게 한다.
정리	○ [정리하기] 핵심 내용 ○× 퀴즈 • [Q]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다. () -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도 충분히 중독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Q]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 질환이다. () - 중독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며, 중독은 뇌 질환이다.	• 마약은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활동지

학습 유형	학습 주제	
개별 학습	마약류의 종류와 중독의 원인	

() 학년 () 반 이름 ()

1. 다음 마약류의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 ● 대마 ●	● 대마초, 해시시, 대마수지 ● 필로폰, LSD, 엑스터시, 프로포폴 ●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	--

2. 뇌의 보상회로의 중요한 부위는 복측피개영역, 중격측좌핵, 전전두엽피질이 있다. 이 회로는 보상뿐 아니라 인공적인 보상에도 활성화되어 도파민을 분비하여 기쁨과 쾌감을 느끼게 한다. 단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도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파민 분비와 연관 지어 설명해 보세요.

입기자료1

청소년에게 마약 대응으로 둔갑한 진통제 ‘펜타닐 패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A(19)씨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개와 00를 압수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특정 연령 대에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IS, 강경국 2021.05.20. 일부 수정]

입기자료2

“다이어트약 3개월 이상 못 먹는다”... 오남용하면 경찰조사까지

▶▶ 장기·중기 복용 시 부작용 우려 커 전문가 복약지도 필수(헬스조선 2021.01.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한 번에 4주 이상 분량의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하거나 여러 종류의 식욕억제제 복용을 시도할 경우, 강도 높은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가벼운 몸 위해 복용한 식욕억제제, 부작용은 무겁다

마약류로 분류될 만큼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이지만 최근 2년간 해당 약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330만명이 넘는다.

1인 평균 157정을 복용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위해 쉽게 복용하는 식욕억제제이지만 부작용은 절대 가볍지 않다. 식욕억제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불면증,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안감, 신경과민 등이 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우울증, 성격 변화, 환청, 환각 같은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물론 폐동맥 고혈압, 빈맥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오남용 우려 수준 식욕억제제 처방 요구하면 ‘경찰행’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식욕억제제를 처방 단계에서부터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남용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제공되지만, 추적관찰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처방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처방한 의사는 물론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 부작용 많은 식욕억제제, 전문가 지시 따라야 부작용 피한다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기 전 부작용을 인지하고 전문가들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조한다. 향정신성약품인 식욕억제제는 각종 부작용이 빈번하기에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따르고,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살을 빼려다 건강을 잃지 않는단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강남구약사회 자문위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자는 대부분은 심한 목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밤 늦은 시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압상승,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식욕억제제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복용 시 전문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주 이사는 또 “식욕억제제 장기복용자들은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신경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기에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용 참고자료



▶▶ 마약중독의 원인

○ 가정에서의 문제

- ▶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성장기 때 행복하지 않았으면 약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 내 싸움이 잦았거나 부모가 약물 문제가 있다면 중독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 학교, 직장 및 친구 사귀는 문제

- ▶ 학교생활이나 친구 사귀는 문제에서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해약물(마약류)을 사용하는 주변인

- ▶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나 가족으로 인해 약물 문제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어린 나이에 약물사용 시작

- ▶ 신체가 아직 발달 중인 어린 나이에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신체 특히 뇌의 성장 완료에 영향을 미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약물중독이 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 유전

- ▶ 중독에 대한 취약성의 40~60%는 유전적 요인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약물을 처음 사용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독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정신건강 문제

- ▶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독될 가능성이 약 2~4배 정도 더 높습니다. 더 나은 기분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약중독과 뇌

중독은 ‘뇌 질환’입니다.

약물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사용을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해약물은 그들의 생활을 급격하게 파괴합니다. 유해약물에 중독된 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레버만 누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유해약물을 남용하면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도파민의 양이 점차 줄어들며, 초기에 느꼈던 즐거운 행동이 덜 즐거워지기 시작하자 이전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점차 약물의 양을 늘리다 나중에는 약물을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도파민

조절 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서 이에서 벗어나고자 더욱 약물을 남용하게 됩니다.

약물(마약류)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감정 기복, 기억상실, 생각과 판단 장애 같은 문제 행동도 일으킵니다. 중독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 약물사용중단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중독은 만성질환입니다. 중독은 다른 만성질환인 당뇨병나 고혈압처럼,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재발은 중독의 이러한 만성적인 특성 때문에 자주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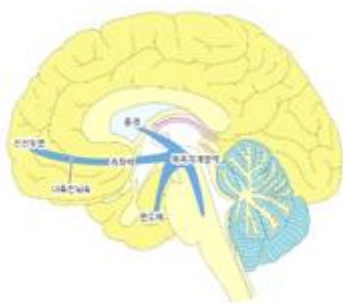
○ 중독과 보상회로

(1) ‘보상회로(reward pathway)’란?

음식, 물, 성관계, 양육 같은 자연 보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즐거운 감정은 보상효과와 연결되어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보상에는 이러한 자연 보상뿐 아니라 술, 담배, 약물과 같은 인위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2) 보상회로와 도파민

우리의 뇌에는 이런 보상 행동을 담당하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보상회로의 중요 부위는 복측 피개 영역, 중격측좌핵,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복측피개 영역은 보상회로를 통해 중격측좌핵과 전전두엽 피질과 연결되며 뉴런을 통해 이들 구조에 정보를 보냅니다. 즉, 복측피개 영역의 뉴런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중격측좌핵과 전전두엽 피질로 분비됩니다.



[출처: DAUM백과]



[출처: 국립부곡병원]

이 회로는 자연 보상뿐 아니라 약물(마약류)와 같은 인위적인 보상 자극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 기쁨, 동기부여, 감정조절, 운동 등에 관여하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기쁨과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위적 보상인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 보상보다 2~10배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고, 효과도 훨씬 오래 지속되므로 자연 보상 행동이 주던 행복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 보상이 주던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삶이 단조롭고 생기가 없으며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자연 보상과 약물 보상의 강도는 컷속말과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지르는 차이와 같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여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과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압도적으로 증가한 도파민양을 조절합니다.

그 결과, 약물을 남용한 사람의 보상회로에 대한 도파민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더는 이전과 같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사용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하여 점점 더 많이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 약물을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쾌감을 더는 느낄 수 없게 됩니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 국립부곡병원 (<http://www.drugfree.or.kr/>)
- 대검찰청 (<https://www.spo.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 마이클 쿠하, 중독에 빠진 뇌, (주)북하우스 퍼블리셔스, 2020년
- 조성남 외,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학지사, 2021년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청소년을 위한 중독 예방 지침서, 2013년

04

고등학교 2차시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 대처

학습 목표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차시	2/2
학습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 [생각 열기] 사진을 통한 다양한 생각 열기 - 교사는 우표 사진을 보여주고,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우표인지 유추하게 한다. [학생용 학습 활동지를 배부하고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무엇일까? - 무엇에 관한 우표일까? -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연도는 언제일까? - 이런 종류의 우표는 왜 만들었을까? - 교사는 학생들의 대답을 충분히 듣고 우표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말해 준다. - [교사용 참고자료의 그림자료 1 참조] 1989.6.26. 태국 발행. 국제 마약퇴치 운동의 해 기념 1996.6.26. 한국조폐공사.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 ➡ 두 우표의 발행일은 6월 26일. 이날은 무슨 날일까?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 1987년 국제연합(UN) 제정. 올해는 35회.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에 의한 악물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연합은 1987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여 불법 마약류의 사용 및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 [소개하기] 우리나라 및 해외 상황 소개한다. - 교사는 우리나라 및 해외 상황 자료 제시한다. (아래 제시된 자료 중 선택하여 제시) - [읽기자료 1] 한국 마약 중독자 급증, 마약 반입 수법 다양해져 - [영상자료 1]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6분 26초) - [영상자료 2] 위험한 마약 사전(처음~2분 17초) - 교사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비롯하여 UN의 마약 대사, 마약위원회 등 마약 퇴치를 위해 개인이나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마약류의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사회가 연결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에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해결도 쉽지 않다. 이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 학생용 학습 활동지 • 그림자료 1 • 읽기자료 1 • 영상자료 1 • 영상자료 2 PPT 바로 가기 활용 또는 교사용 참고 자료 링크 주소 활용	

학습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개 1 (25분)	○ [자료 제시 및 학습지 정리]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교사는 마약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된 자료 중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제시한다. [읽기자료 2] 아편에 중독된 청나라 마지막 황후의 비참한 최후 [영상자료 2] 위험한 마약 사전(2분 17초~6분 55초까지) [영상자료 3] 중독치료전문가가 말하는 ‘마약’(7분 52초) [영상자료 4]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은 자살 시도(2분 17초) [영상자료 5] 마약 중독자 생생 고백(15분 38초까지)(인터뷰 4명, 실태) [영상자료 6] 마약 중독자 부부의 모습(58초) - 학생들은 자료를 보면서 마약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학습지에 정리한다. - 교사는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된 자료 중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제시한다. [읽기자료 3]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영상자료 7] 중국, 마약과의 전쟁, 백색공포의 희생자들(6분 59초) [영상자료 8] 마약사범, 톨게이트서 경찰과 총격전(1분 41초) [영상자료 9]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7분 50초) [영상자료 10]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이 마약 소굴로(2분 8초) - 학생들은 자료를 보면서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학습지에 정리한다.	- 활동지 - 읽기자료 2 - 영상자료 2 - 영상자료 3 - 영상자료 4 - 영상자료 5 - 영상자료 6 - 읽기자료 3 - 영상자료 7 - 영상자료 8 - 영상자료 9 - 영상자료 10
	○ [발표하기] 학생이 정리한 내용 발표 및 정리 - 학생은 정리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발표한다. - 다 같이 정리하기(교사 주도) ➡ 마약류의 위험성과 함께 학생들이 파악한 내용과 함께 교사가 정리해 주기, 영상을 함께 이용하면 좋음. ➡ 개인적 영향에서 특별히 단순 중독뿐 아니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어렵고 결국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음을 주지함. 사회적 명예 실추, 환각 상태에서의 범죄뿐 아니라 범죄 조직과의 연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도 강조할 것. ➡ 사회적 영향에서는 마약류 중독과 이에 따른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시킴. 다양한 범죄조직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하 경제 문제 등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이 있음을 주지함.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도 알게 함. 개인적으로는 마약류로부터 청정하다 해도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의한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입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지시킴.	활동지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개 2 (10분)	○ [생각하기] 마약류에 대한 대처 방법 • 학생은 개인적인 마약류 대처법을 생각해보고 적어보기 (마약류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나 마약류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생각해 보기) • 학생은 사회적인 대처법, 국가나 사회에서 해야 할 일 생각하고 적어보기 (마약류 근절 대책 및 마약류 사범 예방, 치료까지 포함하여) ○ [공유하기] 정리한 내용 공유 • 학생(또는 모둠)이 발표하거나 정리한 내용을 교사가 소개한다. 또는 교사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한다. ➡ [영상자료 2] ‘위험한 마약 사전’ 뒷부분(6분 57초~9분 33초) 활용(선택) [영상자료 5] ‘마약중독자 생생 고백’의 뒷부분(15분 39초~19분 57초) 활용(선택) ➡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함. 마약류에 접촉할 기회를 갖지 않도록 주의할 것. 호기심 갖지 않기, 거절하기, 특히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기(예, 허가받지 않은 약물 이용하지 않기, 잘 모르는 물질에 대해 흡입, 마시기, 피우기 등 하지 않기, 비정상적인 대가에 대해 의심하고 거절하기 등), 특히 접촉한 개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 등 ➡ 국가와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및 감시 필요, 관련 법 제정 및 현실성 있게 재판성, 치료 센터를 통해 마약류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실행, 국제적인 협조,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예시: 언어 사용 주의 교육-마약의 위험성을 감추는 언어 사용 주의 등)	• 활동지 • 영상자료 2 • 영상자료 5 • 생각자료 1 참고(‘마약이 라는 표현 이대로 써도 괜찮은가?)
정리 (5분)	○ [정리하기] 자기 생각이나 다짐 정리하기 • 마약류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다짐 또는 이 교육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한 줄(또는 두 줄) 문구로 만들어 제출하기 - 메모지에 다짐 문구 쓰고, 자기 이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이기	• 메모지 또는 포스트잇

활동지

학습 유형	학습 주제	
자료 활용, 토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바른 대처	

() 학년 () 반 이름 ()

» 무엇일까요?

○ 다음의 사진이 무엇인지 유추해 보고 그 내용을 적어봅시다.

무엇일까요?	자신이 유추한 내용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

□ 마약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제시한 자료(읽기 자료, 영상 자료 등)를 통해 마약류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자.

➡

○ 제시한 자료(읽기 자료, 영상 자료 등)를 통해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정리해보자.

➡

- 마약류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자.



▶▶ 마약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마약류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마약류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대처법을 적어보자.



- 마약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적어보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기 생각을 써보자.



- 우리의 언어문화나 생각 중에 마약류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마약류 예방과 근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모둠이나 학급별로 이야기해 보고 그 내용을 적어보자.



마약류 문제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의든, 타의든 한 번이라도 마약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 마약류 중독이나 관련된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한 줄 정리하기

- 지금까지 마약류의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점이나 교육을 통해 느낀 점 또는 자신의 다짐 등을 짧은 글로 정리하여 아래에 적어보자.



- 위에서 정리한 글을 작은 종이에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두자.



입기자료1

[기사 보기] 한국 마약 중독자 급증...마약 반입 수법 다양해져

▶▶ 해외 마약조직 놀이터 된 한국(시사뉴스 2019.5.10.)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2018년 수사기관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마약사범)은 1만2613명이다. 한국의 마약 중독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 한국의 마약 중독자 10만 명 추정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물뽕’ 투약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마약류 합동점검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가 나선다.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한 합동점검과 특별단속도 이뤄진다.

하지만 많은 중독재활 전문가는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검거 실적’이라는 숫자를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필로폰 생산을 한국에서 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마약 단속으로 밀조 조직이 와해되었다고 한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약취가 난다. 이로 인해 제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적발될 위험 역시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마약 제조기술자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서 제조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및 조폭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해 약을 제조한 뒤 다시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01년부터 꾸준히 숫자가 늘다가 2008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11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으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국적 마약류 사범이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 커피머신·모니터·신발 속... 마약 반입 수법 다양해져

마약을 반입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사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법은 국제우편이나 운반책을 이용하는 형태다.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부터 특정 다수로 다양하다. 2011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중국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2017g이 든 수화물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중국 동방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에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沈陽)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3.7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2명과 필로폰을 인수하기 위해 대기하던 2명을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몸속에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는 고전에 속한다. 이들은 선박의 창고, 골프 케이스, 옷이나 신발의 공간 등 공간이란 공간은 다 활용해 마약 국내 반입을 시도한다.

최근에는 물에 희석해 들여오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적발 가능성도 작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이용당했다는 진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마약 희석 기술자가 올해 초에 입국해 인지수사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멕시코의 경우 드론을 이용해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운반책은 대부분 조선족이나 북한 탈북자가 맡는다. 이 중 다수가 서울 대림동과 경기도 수원, 안산 일대에서 식당을 하거나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내 마약 유통뿐 아니라 마약을 소비하는 구매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일 자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신분 때문에 마약 공급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반책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필로폰을 ‘얼음’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빙두(氷毒)’라고 불리던 것이 한국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 檢, 마약범죄 급증에... ‘마약청’ 추진하나

한편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검찰의 마약 전담 수사기구 설립 논의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마약청’(가칭) 신설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보내는 등 사실상 안을 확정하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전문성, 공정성, 국제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의 내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외청이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소규모 유통 범죄와 투약 사범 검거는 경찰이 각각 분담하다 보니 검경 간 연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유인경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읽기자료2

아편에 중독된 청나라 마지막 황후의 비참한 최후

중국 근대사의 치욕은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한다.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 단속에 반발하며 ‘무역항을 확대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1차 아편전쟁(1840년~1842년)을 일으켰다. 전쟁은 1842년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을 넘겨받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Ningbo,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강제로 개항시켰다.

그 이후 영국은 중국 관리가 해적선인 애로호에 달린 영국 국기를 바다에 던진 일을 구실로 삼아 모욕을 당했다며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아편전쟁(1856년~1860년)을 일으켰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텐진을 점령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텐진조약에는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개항 항구를 확대하며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텐진조약 체결 후에도 청나라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자 진격을 계속해 북경을 함락시켰다. 결국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은 끝났다. 청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아편과의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서양의 강대국들과의 아편전쟁에서는 무참하게 패배하여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식민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는 고위 관료, 지주, 상인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아편을 피웠고, 한번 아편에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아편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는 청나라의 12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의 아내인 완용 황후도 포함되었다.

완용 황후는 만주 출신으로 내무부 대신인 곽포라 영원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고 신식 학문을 익혔으나, 1922년 만 16세의 나이에 이미 망해버린 청 왕조의 황후 선발에 나가면서 완용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이미 1912년에 청나라는 신해혁명으로 인해 패망하였고, 자금성에 있는 청나라 정부는 중화민국 으로부터 옛 왕조의 권위만을 인정받았고, 황제는 외국 군주의 대우를 받을 뿐이었다(대청황실 우대조건). 일상적인 허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금성 생활 속에서, 완용은 사진찍기, 추리 소설 읽기, 피아노 치기, 영어 쓰기를 즐겼다. 이때부터 완용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겪었으며, 남편인 부의의 허락을 받아 틈틈이 아편을 피우기 시작했다. 1924년 평위상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 청나라 황실 우대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금성을 점령하였다. 부의와 완용은 자금성에서 추방당하고 영국과 네덜란드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한다. 부부는 둘이서 조용히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국의 피임으로 텐진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인 일본 조계³⁾로 간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완용은 텐진에 거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편에 의지했다.

3) 조계 :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 있었던 외국인의 거주 지역

1934년엔 일본국 괴뢰정부⁴⁾인 만주국의 황후 자리에도 올랐으나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의 전반생(我的前半生)>에서 부의는 당시 아내인 완용이 이미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고, 호위병인 일본 군관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나중에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아편에 더 빠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부의가 아내 완용이 아편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된 것에 격분한 나머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렸다. 이 사실을 몰랐던 완용은 자신의 오빠가 아이를 키우는 줄 알고 한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오빠에게 보냈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텐진에서 완용 황후가 초기에 피운 아편은 일본인들에 의해 공급되던 것이었고, 대청제국 황후의 아편 중독 사실은 일본인들에 의해 널리 선전, 확대되었다. 일본 첩자였던 집사는 황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일본국에 상세히 보고했다.

완용 황후는 1938년 7월부터 1년간 ‘장수를 위한 연고’라고 불렀던 아편을 740온스(약 21kg)나 흡연했는데, 그녀가 피운 아편의 양은 하루에 2온스(약 56.7g)가량으로, 중독되지 않은 흡연자에게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정권을 장악하자, 완용은 더는 원하던 아편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중국 공산당 군대가 그녀를 지린성에 있는 독방에 가두자 금단증상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 황실의 먼 친척이며 감방 동료였던 사가 히로는 완용 황후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공산당 군인들과 호기심 많은 농부가 그녀를 보려고 감방 앞에서 떠들고 웃자, 황후는 아편을 달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 댔고, 같이 수용된 죄수들조차 그녀를 조용히 시키라고 고함을 지를 정도였다. 황후는 끊임없이 구경꾼과 간수들에게 아편을 달라고 애원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금성에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을 목욕시키거나 음식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다. 감방은 그녀의 대소변과 토사물로 더럽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방의 간수들은 완용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씻기는 일은 물론, 심지어 더러운 감방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 완용 황후는 영양실조와 아편 금단증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출처: <https://blog.naver.com/sdcsh/222211204426>, 일부 수정)

4) 괴뢰정부 : 실권 없이 다른 나라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정부.

입기자료3

왜 중국은 100년이나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중국은 왜 아편에서 벗어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을까? 우리가 아는 아편전쟁 후 1842년 난징조약을 맺으면서 ‘아편’은 중국에 공공연하게 나돌게 되었다. 당시 서구 강대국들은 무역에서 흑자를 보기 위해 아편을 공개적으로 유통하였고, 그 이후 아편은 중국인들을 중독시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전까진 맹위를 떨쳤다. 1880년대는 4천만 명이 흡연자이고, 전체 인구의 5%인 2천만 명이 ‘중독자’가 될 지경이었다. 아편 때문에 자식과 아내를 팔아버린 이야기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지에서 보는 아편굴은 실제 1900년대 초반에 상해에만 2천 개 이상 존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아편 천국이 된 것일까? 1729년에 세계 최초의 금연령이 내려진 바가 있을 정도로, 청나라 황실은 아편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중국의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멋’으로 아편을 피웠다는 데 있다. 아편은 값도 비싸고, 태우는 방법이 어려워 그 자체가 하나의 풍류를 만들어 냈다. 또한 일반 백성은 그런 상류층의 모습을 부러워해서 따라 하는 일이 많았다. 또 아편의 특성상 중독되어도 몇 년 내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도 했으며 여기에 더해 당시 잘못된 의료상식도 컸다. 당시 중국에선 아편을 병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오해하여 함부로 썼다. 아편을 피우면 초창기에는 아픈 것이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힘이 강해져서 이런 오해를 한 것이었다. 중독자의 70% 정도가 ‘약’으로 오인하고 사용했을 정도이다.

정리해보면 아편은 일단 상류층에서 멋으로 피우고, 이를 동경한 평민들에 의해 중국에 퍼져 나갔으며, 아편전쟁으로 인해 대대적인 규모로 키워졌다. 청 왕조는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1911년 일어난 신해혁명에 뒤이어 군인들이 파벌을 만들어 나라 안이 어지러워진 탓에 이를 이어갈 수 없었다. 여기에 척박한 토지에 사는 농민들은 수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귀비를 재배했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뻔뻔한 범죄 행위를 지속해나갔다.

결론적으로 중국인들은 1842년부터 1949년까지 아편의 굴레에 머물러야 했다. 아편에 취해 처자식을 팔아먹고 길가에 나앉는 이들의 사연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나랏돈은 밖으로 유출되었고, 서구 강대국들이 아편을 수출하지 않아도, 군벌을 비롯한 탐욕스러운 관리와 빈곤한 농민들에 의해 기름진 농지가 양귀비 재배장으로 바뀌는 모순을 겪어야 했다. 아편은 중국인의 심신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전체에 치명타를 가했다. 중국에 있어 1842년 난징조약 이후 100년은 ‘굴욕의 100년’이라 칭할 만한 것이다.

(출처: <https://zazak.tistory.com/1354> [세상 모든 것의 리뷰], 일부 수정)

영상자료1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 [이슈투데이]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 기사 입력: 2016.10.12. 오전 7:31
- 동영상 뉴스(6분 26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683534>

▶▶ [기사 내용]

대마초를 피운 적 있는 화물차 기사 인터뷰.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 대마 사용 실태를 알아봄. 우리나라 마약사범 수 증가 실태를 고발하며 마약 청정국이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는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마약류 사범 증가 실태를 고발함

2015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1,916명으로 유엔이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2016년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만 이미 8,420명.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함. 밀수 하려다 적발된 마약 무게만 92kg.

유엔이 정한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수 20명 미만인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7만 명이므로 청정국 조건에 부합하려면 1만 214명 이하여야 함. 그러나 이제 그 수치를 넘어 마약 청정국에서 이미 벗어남. 회사원, 가정주부 같은 일반인 중에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늘고 있음. 한 국립대 교수는 아예 아파트 발코니에서 대마를 키우다가 적발, 광주에서 필로폰 유통책 부부가 구속되었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상당수가 가정주부였음. 채팅앱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신종 합성마약을 우편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음. 주한미군이 대량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적 있는 신종마약 '스파이스'와 비슷한 것으로, 대마의 화학 구조를 살짝 변형해 감시를 피한 것.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활용하는 예도 많음.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마약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를 거치는 수화물을 상대 국가가 느슨하게 검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약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르핀, 헤로인의 원료인 아편은 7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후 동남아, 인도 등으로 옮겨진 뒤 가공을 거쳐 북미와 동아시아로 재전파되는 과정에 우리나라를 거쳐 감.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려고 대학생, 유학생, 무직자 이런 사람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함. 지난 3월 대구에선 한 여대생이 SNS에서 “간단한 운반만 하면 돈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했다가 마약 밀매 혐의로 붙잡히기도 함. 심지어 10대 청소년을 유인한 예도 있음. 여성용 속옷과 신발 밑창에 필로폰 3백 그램을 숨기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함.

[저작권자(c) MBC(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영상자료2

위험한 마약 사전

▶▶ [tvN 커버스토리] ISSUE.2 ‘마약 오염국’ 위험한 마약 사전

- 2019.05.16. (총 9분 33초)
- <https://www.youtube.com/watch?v=EnDHZRr1RP8>

- (처음~2분 17초) 마약 관련 한국의 실태
- (2분 17초~4분 13초) 클럽을 통한 마약 시작 경위. 성범죄 등 연관 범죄에 노출됨.
가장 많이 유통되는 필로폰의 위험성.
- (4분 14초~6분 55초) 중독 경위. 뇌의 변화, 마약범죄로 이어짐.
- (6분 57초~9분 33초)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영상자료3

중독 치료 전문가가 말하는 ‘마약’

▶▶ [비디오머그-대한민국 마약을 말하다 7] “그 끝은 사망” 중독 치료 전문가가 말하는 ‘마약’

- 2019.06.03. (총 7분 52초)
- <https://www.youtube.com/watch?v=TDv5y5rulkQ>

- 전문가: 조성남(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장(국립법무병원장) 32 마약재활정신과 전문의)
- 마약이 불러온 끔찍한 사건들
 - 사건#1: 2016. 8월, LSD[환각제] 투여한 20대 남성, 엄마와 이모를 흥기로 살해.
처음 먹은 마약에 급성 중독되어 ‘망상’에 빠지면서 일어난 사건
 - 사건#2: 2016. 2월 대마초와 필로폰 복용 남성. 보복 운전하고 사냥개 풀어 위협.
뇌의 변연계 파괴, 사소한 일에도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함.
마약에 의한 정신병 발병, 그 이후는 사망
- 마약 투약 전·후 : 급속한 노화(38세 여성 노인 모습으로 사망), 버거씨병, 메스버그, 환각, 정신 증상, 환각에 의한 왜곡된 지각
- 마약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 : 뇌의 기억 장치 속에 저장되어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
마약에 대한 환상은 허상이다.
- 최근 아이들: 졸피뎀 사용. 치료를 목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약인데 데이트 강간약으로 남용되고 있음. 기타 각성제, 다이어트약, 항불안제, 프로포폴 등이 있음.

영상자료 4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은 자살 시도’...복합 치료 필요

- 기사 입력: 2010.04.06. 오전 1:50 (기사원문 스크랩)
- 동영상 뉴스(2분 17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93239>
- 마약중독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킴을 고발함.
중학교 때 본드를 시작으로 대마초에 필로폰까지 마약류에 중독돼 10대와 20대 시절을 보낸 40살 김 모 씨 인터뷰.
- 2009년 보건복지부가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중독자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심리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37%가 우울증을, 29%가 불안증을, 이해력과 집중력 저하가 33%, 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예도 24%에 달함. 또, 마약뿐 아니라 담배나 술에 중독된 경우도 많아 마약 중독자의 75%는 술을, 90%는 담배를 피운다고 함.
- 국내 마약 중독자의 절반은 필로폰 사용. 필로폰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마약류 가운데 가장 위험하며, 뇌를 손상해 불안 증상, 자살 충동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합적인 치료가 필수적임.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재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영상자료 5

‘마약의 끝이 죽음인 이유’...중독자들의 생생한 고백

» [SBS 뉴스토리] 어느 마약 중독자의 고백...“마약의 끝은 죽음입니다.”

- SBS 뉴스: 2019.05.18. 09:37 (총 19분 57초)
- <https://tv.naver.com/v/8412453> (학습 소요 시간에 맞춰 일부분만 시청해도 됨.)
- (처음~1분 43초) 마약 중독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병원인 국립 부곡병원에 입원한 20대 청년의 고백. 필로폰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갔으며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약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며 그는 살고 싶다고 호소함.
- (1분 43초~5분 34초) 마약 회복자 인터뷰. 피로회복제인 줄 알고 복용하기 시작. 마약을 하기 위해 빚을 지고 거짓말을 함. 여러 번 구속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됨. 마약범 교도소 실상. 다양한 후유증.
- (5분 35초~8분 53초) 인천의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온 50대 중년의 한 남성 인터뷰. 한때 건설사 임원까지 지냈지만, 세 번 구속, 마약으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절반인 25년 동안 마약을 해왔으며, 여러 번 자살 시도 고백.

- (8분 84초~13분 58초) 50대 부부 인터뷰(남편 마약 회복자). 남편 필로폰으로 3번 구속.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 첫째 틱장애, 둘째 자폐 증상. 남편 재활로 가정 회복. 마약 중독을 끊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마약을 끊으려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함.
- (13분 59초~15분 38초) 우리나라의 실태. 2016년 이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우리나라. 손쉽게 불법 유통. 자아도취감, 자살 충동, 메스버그 현상, 치아 손상 등 마약으로 인한 신체 영향.
- (15분 39초~19분 57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양면적인 접근법. 마약 중독자 치료 병원. 암페타민 사범 1년에 10,000명인데 치료는 300명 정도밖에 안 됨. 약물중독치료자활 공동체 목사 인터뷰. 중독자를 보는 사회의 시선. 부곡병원 입원한 20대 청년 다시 인터뷰.

영상자료6

마약 중독자 부부의 모습

▶▶ [영상pick] SNS에 라이브로 전해진 '마약 중독자 부부'의 모습

- 기사 입력: 2016.10.07. 오후 3:25 / 최종수정 2016.10.07. 오후 5:27 (기사 원문 스크랩)
- 동영상 뉴스(58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461825>
- 2016년 10월 3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촬영된 영상 소개. 마약 중독자 부부가 헤로인에 완전히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정신을 잃은 상태를 보여 줌.

영상자료7

중국, 마약과의 전쟁: 백색공포의 희생자들

▶▶ [KBS 생방송 세계는 지금] 중국, 마약과의 전쟁: 백색공포의 희생자들

- 2001.09.25. 방송(6분 59초)
- <https://www.youtube.com/watch?v=4GLCzrFRi5E>
- 중국 마약사범 단속 장면, 유흥업소에서 주책가까지 퍼진 헤로인
- 마약중독으로 신체와 삶이 망가진 중국 유명 배우의 모습
- 중국 남부 윈난성, 마약 단속반의 마약 밀매 용의자 추적 장면
- 마약 단속으로 사망하는 마약 범죄단 및 경찰의 모습 등 실태 고발

영상자료8

[동영상] 마약사범, 톨게이트서 경찰과 총격전... 中 현장 포착

▶▶ 마약사범, 톨게이트서 경찰과 총격전... 中 현장 포착

- 기사 입력: 2014.12.15. 오후 9:06 (기사 원문 스크랩)
- 동영상 뉴스(1분 41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95918>
- 중국에서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장면이 공개.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을 맞고 숨지거나 붙잡힘. 경찰은 지명 수배를 받고 있던 마약 밀매범들을 잡기 위해 며칠 전부터 잠복 해옴. 차 안에서는 시가 50억 원어치의 마약 30kg이 발견.
- 중국 당국은 마약사범을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중국의 마약 중독자는 계속 늘어 1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영상자료9

[동영상]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피의 아보카도

▶▶ [KBS 세계는 지금]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피의 아보카도(177회)

- 2020.07.04. 방송(7분 50초)
- <https://www.youtube.com/watch?v=1qQjeKIYR5o>
- 멕시코 남서부의 산간 지역 미초아칸주, 미초아칸 전 세계 아보카도 최대 생산지,
- 아보카도 농장을 둘러싼 마약범죄 조직(카르텔)과 주민과의 총격전.
- 마약 조직이 아보카도 농장에서 돈을 갈취함. 자경단은 24시간 마을을 순찰함.
- 총격전과 희생자들 한 해 동안 1,500여 명.
-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속수무책. 도시 곳곳에서 총격전 흔적.
- 멕시코 카르텔의 실상, 갈수록 잔인해지는 카르텔의 범죄.

영상자료10

[동영상]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이 마약 소굴로...한인 사회 위협

▶▶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이 마약 소굴로... 한인사회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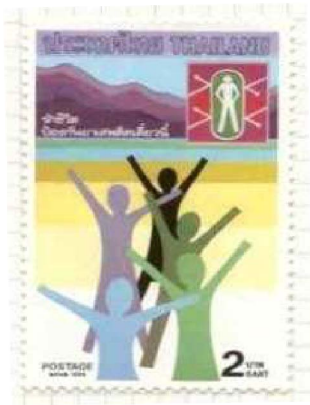
- KBS 뉴스(2분 8초)
- https://www.youtube.com/watch?v=_8h2-PZ07zQ
-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 상파울루의 마약 소굴 취재 내용. 도심에서 벌어지는 마약 흡입 상황 및 대규모 마약 소탕 작전과 한인 사회 위협에 관한 내용.
- '크라콜란지아'에 머무는 마약 중독자들은 2천여 명, 한때 6천여 명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앙골라까지 6, 7개 나라에서 중독자들이 마약을 찾아 몰려들고 있으며,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매일 시신이 발견될 정도로 치안의 사각지대.



교사용 참고자료



그림자료 1 : 우표 및 엽서



- 발행일: 1989.6.26.
- 발행국: 태국
- 액면가: 2b
- 국제 마약퇴치 운동의 해 기념



- 발행일: 1995.6.26.
- 제8차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 발행일: 1996.6.26.
- 발행량: 3백만 장
- 액면가: 150원
- 인쇄처: 한국조폐공사
-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를 바라며 발행함.



- 발행일: 2017년
- 액면가: 1.2위안
- 중국 우정에서 발행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우표

📌 생각자료1

‘마약’이라는 표현 이대로 써도 괜찮은가?

‘우리 동네 마약 떡볶이, 마약 분식, 마약 김밥, 마약 소스…….’

‘국뽕, 첫 뽕…….’

‘소위 말하는 첫 뽕을 제대로 맞아서 그런지 두 번째 참돔 낚시는 더욱 설레고 기대가 컸다.’

언제부터가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마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맛있는 음식처럼 자꾸 먹고 싶어지거나 재미있어서 단골이 되거나 계속 원하게 되는 경우 마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한다.

애국심이 지나칠 정도로 심한 편으로 대한민국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행위에 대해 ‘국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국뽕’이란 국가와 필로폰(히로뽕)을 합한 단어이다. 뽕은 필로폰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요즘 여러 곳에 접미사처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처음 겪는 놀랍거나 좋은 일에 대해 ‘첫 뽕’이라고 쓰기도 한다.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특정 단어나 언어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 뇌를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언어는 사람의 정신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블로그 주인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새 우리는 마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마약과 관련된 말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제는 마약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마약사범도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고 거리감을 줄어든게 하여 마약류에 더 쉽게 접근하는 분위기를 만들까 우려된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과거 또는 현재의 상처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버림으로써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무시함으로써 또 새로운 중독자들의 탄생을 촉구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 **생각자료2**

[동영상] '마약'의 역사와 그 속의 과학적 사실을 파헤쳐 본다.

▶▶ [안될 과학-랩미팅 20화] '마약'의 역사와 그 속의 과학적 사실을 파헤쳐 본다

- 시간: 21분 55초
- https://www.youtube.com/watch?v=h_OMXIfGUv8

- 마약의 역사, 마약의 작용, 마약에 의한 피해 등, 마약 사용에 의한 실태를 과학적으로 밝혀 준다.
- 마약의 화학 구조 및 신체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해 주므로 마약의 작용과 중독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이런 부분은 최소 중3~고등학생 이상의 학생에게 적합할 듯.

💡 **생각자료3**

한국, 마약청정국 그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 [시사이슈칼럼 김병민] 마약의 그 위험성

- 2019.05.03. 22:54
- <http://blog.daum.net/ugc2013/775>

중국의 마약 역사를 보면 양귀비로부터 시작하는데 양귀비의 씨와 껍질을 다른 약재와 혼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탁월한 약재로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이다.

명나라에 와서 양귀비에서 아부용이라는 아편을 추출하여 궁중에서 황제와 귀족들이 문란한 향락을 추구하면서부터 이 약재가 퇴폐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다. 마카오에 들어온 포르투갈 상인들이 1517년 터키 생산 아편을 들여오다가 1589년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으로 들여오자 그 중독성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18세기 후반기에 매년 5만kg나 중국 쪽으로 유입되게 된 것이다. 이 아편을 폐로 흡입하게 되면 모르핀이 빠르게 혈액 속에 퍼져 강한 마취 효과에 따른 공중 부양되는 듯 붕 뜨면서 짜릿한 쾌감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후유증도 모르고 너도나도 구입하게 된 것이다.

영국은 당시 중국의 광저우 항을 통해 중국의 도자기, 차, 비단 등을 수입하여 전 유럽으로 판매하는 무역에 열을 올렸는데 중국에 그 대금으로 은을 지급하면서 은이 고갈되어가자 영국은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아편을 인도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아편을 중국에 집중 수출한 것이다.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그동안의 은이 아편을 구입하면서 고갈되고 청의 국가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민중의

삶이 마약으로 피폐해지자 임칙서를 파견하여 정박한 영국 선박의 아편을 몰수해 모두 불태우면서 1840년 영국과 아편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중국은 패하고 말았다, 마약 때문에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마약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에 와서도 마약 전쟁의 트라우마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형을 시키는 엄격한 법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마약사범도 수년 전 중국에서 잡혀 형을 살다가 사형시킨 후 한국 정부에 이를 사후에 통보할 정도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인정 사정도 국가 간 예의도 없을 정도로 가혹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마약왕 영화 대사에 ‘첫 뽕이 개뽕이다, 첫 뽕 못잊어 걸뱅이가 된다’는 말과 함께 뽕을 하면 하늘에서 천사하고 악마하고 같이 내려온다는 말은 마약의 위험을 함축해주고 있다. 히로뽕 즉 필로폰이라 불리는 뽕에는 암페타민이라는 성분 물질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집중력 강화, 흥분 지속, 행복감이 고양되어 천국에 온 느낌이 들어 미주나 유럽 등에서는 파티 약물 또는 레크리에이션 약물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약물을 중독성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호흡계, 신경계가 훼손되면서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로 급사하게 된다는 의사들의 경고다. 마약으로 숨진 팝가수의 세계적인 레전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도 과도한 약물남용이 죽음의 원인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큰 부유층의 자제들이나 연예계 스타들이 마약사범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연예 및 예술계 마약사범이 2017년 46명으로 2014년 37명 기준 매년 증가추세이다.) 한국 가요계의 레전드인 신○○, 조◇◇, 전△△ 등도 마약으로 구속된 바 있을 정도로 스타들은 인기 유지를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작사 작곡 등 엄청난 집중력과 무대 뒤의 공허감 등 마약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관련 정신의학과와 심리학자들은 이를 분석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부유층 일부 자제들과 최고의 스타들이 고독과 공허감을 상쇄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인생의 무서운 역설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 정신적인 강한 멧집을 만들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정도의 노력을 항상 구가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마약 청정국 기준을 보면 유엔범죄마약국은 인구 10만 명 당 20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부터 이를 넘어서 2018년에는 24.3명으로 마약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압수된 마약류가 2017년 258.9kg에서 2018년 517.2kg로 1년 만에 2배가 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원한 술, 아이스 작대기, 크리스털, 떨, 빙두(북한필로폰)이라는 마약 은어 검색어를 치면 판매범이 텔레그램 ID와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는데 1g에 30만 원을 부른다는 것이다. 점조직으로 배달책을 구해 지정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매자에게 거래된다는 것이다. 마약 수사가 SNS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해외서버 등으로 실시간 24시간 체크가 부족한 수사 인력

등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전에는 마약 유통자를 중심으로 한 마약사범 위주의 검거 수사가 진행되어 성과를 올렸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대응 수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해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여행객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캐리어(마약 가방) 심부름을 하다가 마약 밀수범으로 잡혀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여러 번 보도되고 있으니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남성 마약사범은 항문에, 여성은 음부에 숨겨 입국하다가 고성능 보디 스캐너에 걸려 잡히고 있지만, 하루 10만명 이상 인천공항 입국자 전부를 확실하게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동남아 일대에서 1kg당 필로폰 공장가격이 500만 원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5억 원이 되어 100배의 폭리가 되니 마약거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할 것이다.

마약류에는 관련약성물, 물뽕,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환각성 본드, 아산화질소 해피벌룬(마약 풍선),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모르핀, 마취용의 프로포폴, 수면제로 사용하는 졸피뎀이 있고 이름모를 위험한 신종 마약물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한국에서 마약류 범죄자들이 급격히 많이 대두된 시기가 있었다는데 한번은 1997년 국가부도 사태 기간과 2009년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웠을 때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마약사범이 발호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고난의 경제 상황의 기간에서와 같이 마약사범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자들과 마약 범죄 한 건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자들의 의식이 맞물려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 30만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7조 원에 이르고 있다니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마약으로 망할뻔한 중국의 근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국가 경제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마약으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건강한 국민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단 한번의 인생을 사는데 약물에 의존하거나 마약 사건에 얽혀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앞서도 말했지만 바르고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정화하면서 특히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방도로 극기하려는 강한 의지력으로 힘차고 밝게 살아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부 록





마약류 관련 교사용 참고자료



1. 마약의 정의

-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전지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된다.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표 1] 마약의 분류

분류		종류
마약류	마약	천연마약, 추출알칼로이드,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대마초, 해시시
임시 마약류		1군, 2군

1) 마약

가) 개요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표 2] 마약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성분 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	3	
추출알칼로이드	몰핀, 코데인, 코카인, 헤로인	35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딘, 펜타닐 등	98	일부 의료용 사용

○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葉]: 코카 관목(灌木)[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나) 종류

(1) 천연마약 및 추출 알칼로이드

(가)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罂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종이다.



[그림 1] 양귀비(출처: UNODC)

- 기원전 5,000년경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돌에 아편 관련 지식을 새겼던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로부터 추출한 액체를 질병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은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 경부터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재배된다.
- 양귀비라는 명칭은 그 꽃이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견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국내에서의 양귀비 재배는 아편 추출 목적보다 주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서 가정상비약, 동물 치료 약 등으로 사용할 목적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 개화 시기는 매년 5~6월로, 이 시기 양귀비 재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농어촌과 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계몽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 최근 양귀비 종자 셀러드드레싱 등 양귀비 종자를 가공하여 상품화한 마약류 제품군 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그림 2] 양귀비 종자 가공 마약류

(나) 아편(Opium, 阿片)

- 아편은 제조방식에 따라 생아편, 의약용 아편, 흡연용 아편으로 구분된다.
- 생아편은 양귀비꽃이 지고 난 후 양귀비 열매의 유액을 6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후 건조하여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 의약용 아편은 생아편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모르핀의 함유량을 10% 내외로 조절한 것을 말한다.
-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증발·농축하여 액상으로 만든 것이다.



[그림 3] 생아편(출처: UNDOC)

- 아편은 주로 인도·터키·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제조되었다.
-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아편전쟁(1840~1842년)을 치르며 아편의 부작용을 몸소 체험한 중국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다.
- 최초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하는 때에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추후 심각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며,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다) 모르핀(Morphine)

-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 반응을 거쳐 추출한 진통성이 강한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가 아편에서 최초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의 모르페우스(Morpheus, 꿈의 여신)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그림 4] 모르핀(출처: DEA)

- 아편으로부터 추출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효과가 뛰어나지만,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며, 사용을 중단하는 때에는 심각한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 모르핀에 중독된 사람은 보통 하루에 3회(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 투약하고,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하루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 이상을 투약하는 때에는 호흡장애를 유발하여 투약자 대부분이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른다.

(라) 코데인(codeine)

- 코데인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의학적인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통증을 억제하는 등 진해 및 진정 작용이 탁월하고, 신체적 의존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남용하는 때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액상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마) 헤로인(heroin)

-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이란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 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제조한다.



[그림 5] 헤로인(출처: DEA)

- 아세틸 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는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로서,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이다.
- 모르핀을 원료로 하기에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한다.

(바) 코카인(cocaine)

- 코카인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야기하는 천연마약이다.



[그림 6] 코카나무(출처: UNODC)



[그림 7] 코카인(출처: DEA)

- 코카인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칼로이드가 구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의식 중 최면 효과를 내기 위해, 일반인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 코카인은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유럽에 전해졌고,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어 1873년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었다.
- 코카인은 남미 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인을 농부가 직접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로 만들어 이를 정제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나, 대부분은 정글 내 제조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법률적 규제 하에 정식으로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였다.
- 남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인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용자들은 결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기로 투약한다.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흡입 또는 투약 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경련이 일어나며, 보다 심할 때에는 호흡곤란으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후 냉각시켜 추출한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다. 유리관에 넣어 가열 또는 기포화하여 흡입한다.



[그림 8] 크랙 코카인(출처: DEA)

(2) 합성마약

-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내면서도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서,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티딘(pethidine)계, 메타돈(methadone)계, 모르핀난(morphinan)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페티딘계와 메타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된다.

(가) 페티딘계



[그림 9] 페티딘(출처: drughelpline.com)

- 페티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서, 1939년 독일 헤스트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었다.

- 최초 ‘Dolantin’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는데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티딘, 펜타닐, 디페녹실레이트 등이 있다.
- 페티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주는 측면에서는 모르핀과 유사하다.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된다.



[그림 10] 펜타닐(출처: MEDIGATE NEWS)



[그림 11] 펜타닐 패치들(출처: Yakup.com)

(나) 메타돈(methadone)계

- 메타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헤스트(Hoechst) 제약이 개발한 합성마약으로서 현재 메타돈, 아세틸메타돌, 디피파논 등이 알려져 있다.



[그림 12] 메타돈(출처: EDA)

- 개발 당시 메타돈의 약리 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화학적으로는 모르핀,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르핀보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전후(戰後) 마약중독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 1965년 우리나라의 23개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타돈을 일반 약품에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수만 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소위 ‘메타돈 파동 사건’이 발생했다.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요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 대상 물질을 말한다.

[표 3]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	대표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가목	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툼(Kratom),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101	• 의료용 불사용 •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44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바르비탈(Barbital),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61	• 의료용 사용 •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디아제팜(Diazepam), 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71	• 의료용 사용 •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성분 수는 2017년 83종, 2018년 91종, 2019년 95종, 2020년 98종, 2021.1.5. 기준 101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목부터 환각효과 등의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1)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속칭 ‘필로폰’으로 더 알려져 있다.
- 메트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한 물질로 1893년 세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한다.



[그림 13] 마황(출처: mfds.go.kr)



[그림 14] 마황

- 메트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여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고,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현재까지도 메트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의 제고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메트암페타민은 의존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중독되고 중독된 사람은 극심한 금단현상을 겪으며, 투여 시 도파민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가 파괴됨으로써 다양한 증상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과다 투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메트암페타민은 국내에서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지칭되며, 미국

에서는 결정체는 ‘ice’, 가루 형태는 ‘speed’로 불리고, 중국에서는 ‘빙두’, 필리핀에서는 ‘사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불린다. 최근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충’ 등 은어로도 지칭된다.

(2) MDMA(3,4-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됨.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시중 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되었다.
- MDM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엑스터시(Ecstasy)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
- 1980년대 유럽의 클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MDMA 복용 시 성욕이 증가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격렬한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국내에서는 ‘도리도리’라는 별칭이 있고, ‘캔디’라는 은어로도 지칭된다.
- MDMA는 메트암페타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3배가량 강하고, 분말 형태도 있으나 주로 알약 형태로 된 MDMA를 섭취하며, 투약 방법이 간편하여 많은 국가에서 오남용되고 있다.



[그림 15] MDMA(출처: UNODC, DEA)

- 복용 시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옹 마약(hug drug)’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복용 후 20~60분 정도 지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도의 흥분감을 일으키며, 3~4시간 약효가 지속된다.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3)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법 제2조 제3호 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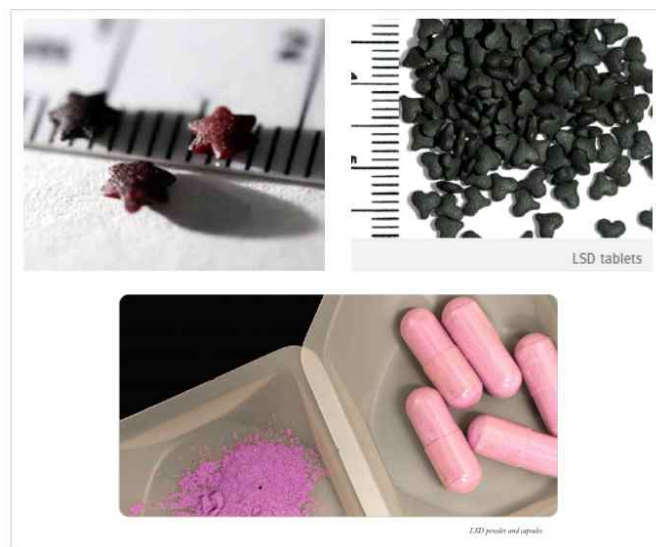
- LSD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엘버트 호프만(Albert Hofmann)이 호밀 이삭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에서 착안하여 최초 합성한 환각제로,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 형태이다.
- 1960년대 반문화운동 시기에 많이 남용되었으며, 가격이 저렴하여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확산하며, 주로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인쇄하여 이를 혀로 핥는 방법

으로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하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여 시 오감을 왜곡시키는 환각효과를 경험하게 되며,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신체 변화 및 내성 등은 확인된 바가 없으나 투여로 인한 뇌 손상, 혈압 상승, 수전증 등의 부작용은 여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림 16] LSD 스티커(출처: DEA)



[그림 17] 정제형(출처: UNODC)

(4) 날부핀(Nalbuphine)[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날부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이었으나, 환각성이 있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기도 하였다. ‘누바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18] 날부핀(출처: vasg.org)

- 피하 주사 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우울증, 두통, 환각 증상 등 정신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법 제2조 제3호 라목]

-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뇌의 기침 중추에 작용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로 코데인과 화학적 구조는 비슷하다.
- 이를 과다 복용하면 심박수 증가, 뇌 손상, 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각 작용이 있어서 청소년층과 가정주부 사이에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단일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품에 복합제로만 유통하고 있다.



[그림 19] 덱스트로메토르판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법 제2조 제3호 라목]

-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보따리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약물이다.
-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다.
-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림 20] 펜플루라민(출처: petrillaw.com)

(7)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법 제2조 제3호 가목]

- 흔히 ‘DMT’라 불리는 환각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상식물인 ‘미모사’의 뿌리 및 몇몇 열대 식물에서 추출이 가능하다.
- 환각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공이 쉬워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 및 원료 식물 형태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디메틸트립타민

다) 기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1)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대마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 화학 구조는 다르지만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이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 대마는 크게 JWH 계열(JWH-018, JWH-030, JWH-175, JWH-176 및 그 유사체)과 HU-210, CP-47497 등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그림 22] JWH-018, HU-210, CP-47497
(출처: blog.employersolutions.com)

(가) JWH-018[법 제2조 제3호 가목]

- 일명 ‘스핑크’, 또는 ‘스파이스’ 등으로 불리며, 천연 마약류인 대마와 화학 구조적으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됨.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며 그 효과가 대마보다 강하다.

(나) HU-210[법 제2조 제3호 가목]

- 1988년 스위스 히브루대학의 라펠 메코람 교수 연구팀이 최초 합성한 대마 성분으로서,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칭이다.
- 대마초의 천연 THC 성분보다 7~8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 기간이 더 길다.

(다) AM-2201[법 제2조 제3호 가목]

- 미국 대학 연구센터의 교수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마약류로서, 위 교수의 영문 첫머리에 따라 ‘AM’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그림 23] AM-2201(출처: researchchemicals.biz)

- 합성마약류를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포장된 상태로 판매 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 및 THC의 수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젖은 빵, 말린 과일 등에 넣어 희석하여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한다.

(2) 크라툼(Kratom)[법 제2조 제3호 가목]

-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이라고 칭하며, 다 자라면 높이가 15m에 이른다.

-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한 각성제로 그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거나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한다.
- 소량 복용 시 각성효과로 인해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과 도취 효과와 함께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톱에 가장 많이 함유된 미트라기닌이라는 물질은 향정신성물질로서, 크라톱 복용 시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림 24] 크라톱(출처: DEA)

(3) 케타민(K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케타민은 임상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며,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킨다.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린다.
- 정맥이나 근육 주사, 흡연 또는 흡입하면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림 25] 케타민(출처: DEA)

(4) BK-MDEA[법 제2조 제3호 나목]

- MDEA 유사체로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환각효과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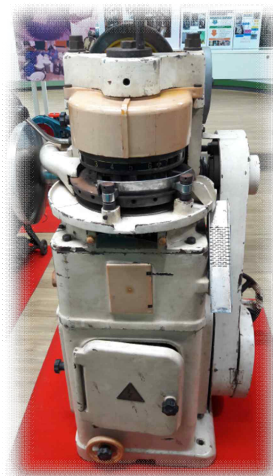
[그림 26] BK-MDEA
(출처: drug-forum)

(5) 야바(YABA)[법 제2조 제3호 나목]

- 야바는 1938년 독일 Temmler Werke GmbH社가 ‘Pervitin’이라는 제품명으로 최초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각성효과를 이용한 전투력 증대를 위해 독일군에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에 야바 제조 방법이 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 야바는 메트암페타민(30%), 카페인(60%), 코데인(10%)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 일반적인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정제나 캡슐 형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 여러 환각물질이 복합 작용하여 환각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복용 시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격한 흥분을 느끼며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탈수 증세와 함께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며, 수일간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그림 27] 야바
(출처: clickittefaq.com)



[그림 28] 야바 제조 기계
(출처: clickittefaq.com)

(6) GHB(Gamma Hydroxy Butyrate)[법 제2조 제3호 라목]

- GHB는 속칭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 등으로 불리며, 최근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 1960년에 GABA의 유사 화합물을 찾던 프랑스 생화학자 H.M. Laborit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그 후 유럽에서 발작성 수면을 치료하기 위한 수면 보조제나 수술용 마취제로서 소개되었으나, 마취제로서의 효능 저하 및 예측 불가능한 마취 지속시간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 미국에서 GHB는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약물로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대체제(체중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으며, MDMA, 술과 함께 파티용 마약으로 사용이 증가하였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1990년대 후반 미국 FDA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하였다.



[그림 29] GHB(출처: DEA)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킨다. 12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렵다.

(7) 프로포폴(Propofol)[법 제2조 제3호 라목]

- 영국 기업이 최초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쳤고, 국내에는 1992년부터 사용이 허가되었다.
- 수면마취제로도 불리는 정맥 투약제로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유지(maintenance)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된다.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운다.
-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 저하 현상을 비롯한 두통, 어지러움, 경련, 구토, 흥분, 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남용됨에 따라, 20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30] 프로포폴(출처: news.sbs.co.kr)

3) 대마(삼, hemp)

가) 개요

- 대마는 칸나비스 속(屬) 일년생 식물로 중국, 인도, 북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었다.



[그림 31] 대마(출처: UNODC, DEA)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 역사가 오래된 식물이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었다.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이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전부터 도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남용되었다.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 황제 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약물과 섬유 원료로 사용되었다.
- 우리나라에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흡연용 대마초가 널리 전파되었다.
-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나) 종류

(1) 대마초(大麻草)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학명은 영어표현으로 ‘마리화나(Marijuana)’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주로 ‘마리화나’라고 한다.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한다. 한편 마리화나는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 (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림 32] 대마초(출처: UNODC)

- 씨앗 생성 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 (tetrahydro 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흡연 시 도취,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된다.
-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된다. 적은 양을 사용하였을 때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듯한 느낌이나 공복감 등을 일으키고, 시각·후각·촉각·미각 등의 감각을 오묘하게 변화시킨다.
- 남용하면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감, 환각·환청 등을 일으킴.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 대마 남용의 위험성은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CBD 오일, 대마 젤리

(2) 해시시(Hashish)

-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갈색·연갈색·암갈색·흑색 등 덩어리의 형태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여 대마초보다 8~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하다.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건강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 해시시 가공 제품 중 오일(Hashish Oil)은 증류 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고도로 대마를 농축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른다.



[그림 34] 해시시(출처: UNODC)



[그림 35] 해시시 오일(출처: UNODC)

4) 임시마약류(신종마약)

가) 개요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
-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2)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표 4] 임시마약류의 분류(2021.3.8. 기준)

분류	물질명	지정성분 수	비고
1군	2,3-DCPP, AL-LAD, phenibut 등	10종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등
2군	alkyl nitrite, 1P-LSD, Diclazepam 등	77종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등

나) 대표적 종류

(1) 알킬 니트리트류(Alkyl nitrite)[2군]

- 2013년 임시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었고,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isobutyl nitrite(일명 ‘러시’), isopentyl nitrite 등이 대표적이다.
- 강한 향을 지닌 노란빛의 물약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국내 유흥업소 등지에서 여성홍분제나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남용된다.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하며 의식상실, 심장 발작 등의 부작용 유발 가능,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 시 황반변성 발생 우려, 의존성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으며,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림 36] 알킬 니트리트류(출처: UNODC)

- 화학 명칭으로는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가 있다.
- ※ 화학 명칭에 기재된 7종에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학술연구 및 제품 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P-LSD[2군]

-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이다.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 LSD의 약 38%의 환각효과가 있고, 현재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규제한다.



[그림 37] 1P-LSD(출처: UNODC)

(3) Diclazepam(디클라제팜)[2군]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이다.
- 투여 시 뇌에서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불안 감소 및 긴장해소에 효과가 있으나, 중독성이 있고 해당 물질들을 장기투여 하면 뇌세포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림 38] Diclazepam(디클라제팜)

다. 마약류별 특성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 용도	사용 방법	부작용	작용 시간
마약	아편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졸음, 구토, 변비, 호흡수 감소, 저혈압	3~7
	헤로인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도파민 수용체 파괴, 내성효과	3~4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 혼동, 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12~24
	염산페티딘	억제	진정 · 진통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향 정 신 성 의 약 품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 · 수면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4~8
	L S D	억제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 · 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 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 ·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3. 현행법상 처벌 규정

가.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구분 \ 유형	단순 투약	수수, 관리, 소지, 소유	수·출입, 제조, 알선, 판매
마약 (아편·모르핀·헤로인· 코카인·메타돈·펜타닐)	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구분 \ 유형	단순 투약, 소지, 사용	판매, 알선, 수수, 제공	수·출입, 제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83개) (LSD·JWH-018 등)	제59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43개) (필로폰·엑스터시 등)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58조 제1항 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다’목(61개) (바르비탈·알페날 등)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59조 제1항 제10호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라’목(70개) (졸피뎀·프로포폴 등)	제60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다.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구분 \ 유형	흡연, 소지, 운반, 보관, 사용, 재배, 흡연 장소·운반수단 제공	판매, 알선, 수수, 수출목적 재배, 제공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대마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1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기타 처벌법규

환각물질, 섭취, 흡입, 흡입목적 소지·판매·제공	인터넷이나 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 제조 방법 등을 유포	마약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마약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표 5] 마약류별 단속 현황(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구분 마약류	건수	합계	인원	
			구속	불구속
합계	14,213	18,050 (100)	2,246	15,804
마약	2,061	2,198 (12.2)	78	2,120
향정	9,822	12,640 (70.0)	1,977	10,663
대마	2,330	3,212 (17.8)	191	3,021

[표 6]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2020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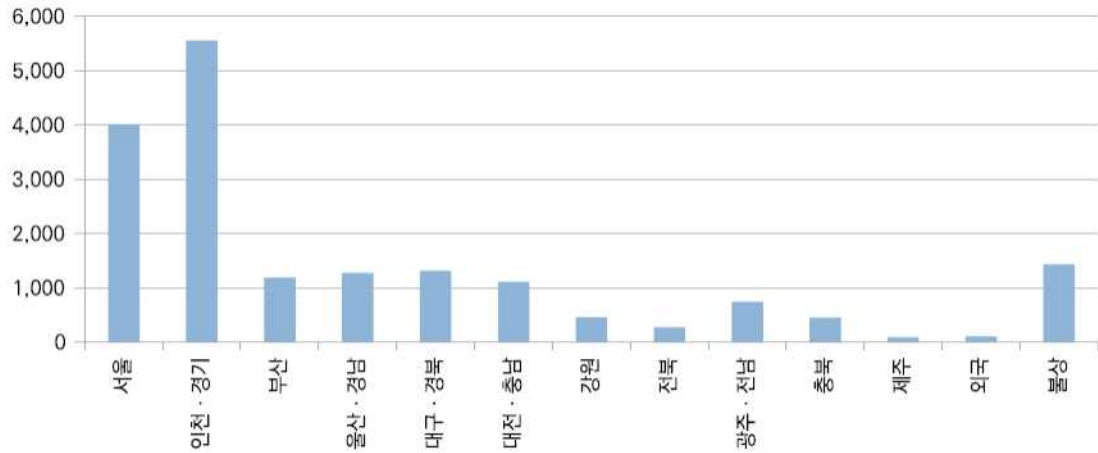
구분 월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구성비(%)
합계	2,198	12,640	3,212	18,050	100
1월	35	700	163	898	5.0
2월	23	713	129	865	4.8
3월	37	708	200	945	5.2
4월	39	904	127	1,070	5.9
5월	92	1024	151	1,267	7.0
6월	467	1214	228	1,909	10.6
7월	998	1302	267	2,567	14.2
8월	230	1033	399	1,662	9.2
9월	70	986	240	1,296	7.2
10월	74	890	351	1,315	7.3
11월	49	1127	417	1,593	8.8
12월	84	2039	540	2,663	14.8

[표 7] 연도별 마약류 사범 추세(2016~2020년)[단위: 명, ()는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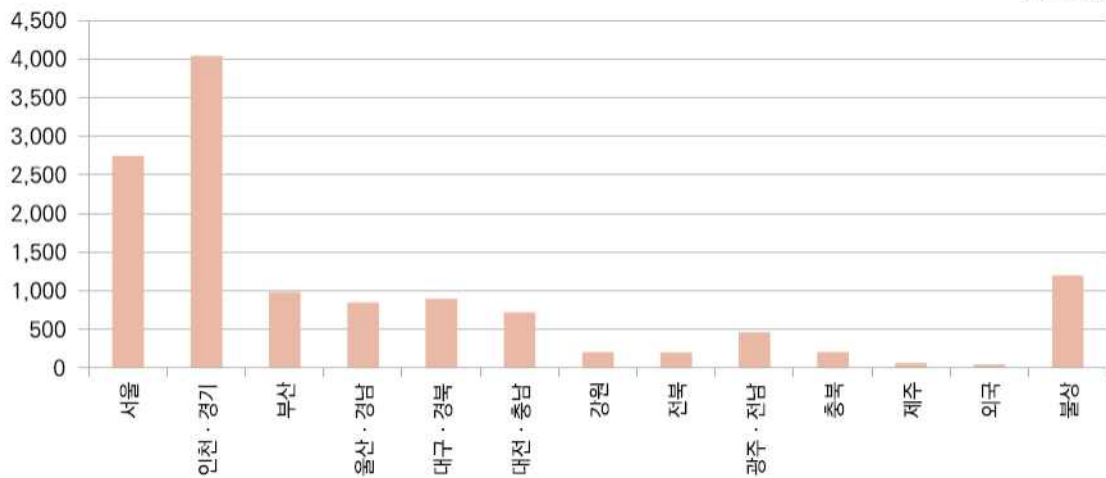
연도 마약류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4,214 (19.3)	14,123 (-0.6)	12,613 (-10.7)	16,044 (27.2)	18,050 (12.5)
마약	1,383 (19.9)	1,475 (6.7)	1,467 (-0.5)	1,804 (23.0)	2,198 (21.8)
향정	11,396 (18.4)	10,921 (-4.2)	9,613 (-12.0)	11,611 (20.8)	12,640 (8.9)
대마	1,435 (26.0)	1,727 (20.3)	1,533 (-11.2)	2,629 (71.5)	3,212 (22.2)

[표 8]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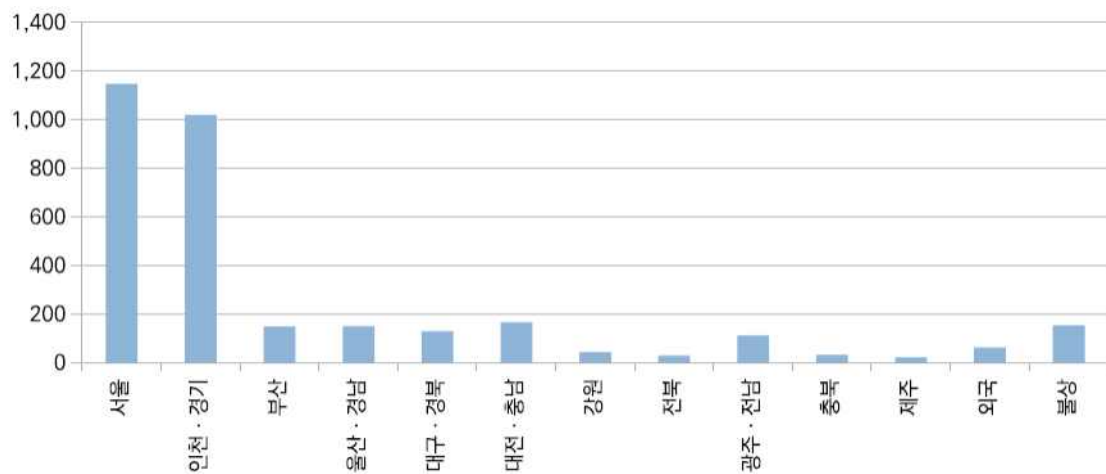
구분 마약류	처리 계	처리 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9,277	5,429	400	3,873	1,214	1,465	13	4,093	298	2,492
	(100)	(28.2)	(2.1)	(20.1)	(6.3)	(7.6)	(0.1)	(21.2)	(1.5)	(12.9)
마약	2,178	77	77	1,623	34	93	0	167	49	58
	(100)	(3.5)	(3.5)	(74.5)	(1.6)	(4.3)	(0.0)	(7.7)	(2.2)	(2.7)
향정	13,704	4,653	291	1,614	884	1,153	13	3,058	211	1,827
	(100)	(34.0)	(2.1)	(11.8)	(6.5)	(8.4)	(0.1)	(22.3)	(1.5)	(13.3)
대마	3,395	699	32	636	296	219	0	868	38	607
	(100)	(20.6)	(0.9)	(18.7)	(8.7)	(6.5)	(0.0)	(25.6)	(1.1)	(17.9)



[그림 39]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2020년) [단위: 명]



[그림 40] 행정사범 지역별 현황(2020년) [단위: 명]



[그림 41]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2020년)[단위: 명]

[표 9]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도 직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4,214 (100)	14,123 (100)	12,613 (100)	16,044 (100)	18,050 (100)
무직	4,105 (28.9)	4,073 (28.8)	3,753 (29.8)	4,972 (31.0)	5,826 (32.3)
농업	476 (3.3)	487 (3.5)	426 (3.4)	406 (2.5)	553 (3.1)
도소매업	110 (0.8)	96 (0.7)	63 (0.5)	93 (0.6)	56 (0.3)
유흥업	81 (0.6)	131 (0.9)	104 (0.8)	151 (0.9)	126 (0.7)
서비스업	159 (1.1)	184 (1.3)	175 (1.4)	225 (1.4)	231 (1.3)
금융/증권	18 (0.1)	15 (0.1)	21 (0.2)	13 (0.1)	34 (0.2)
부동산업	38 (0.3)	37 (0.3)	32 (0.3)	19 (0.1)	25 (0.1)
노동	446 (3.1)	534 (3.8)	407 (3.2)	588 (3.7)	691 (3.8)
회사원	492 (3.5)	522 (3.7)	534 (4.2)	723 (4.5)	962 (5.3)
공업	142 (1.0)	233 (1.7)	126 (1.0)	206 (1.3)	278 (1.5)
건설	72 (0.5)	118 (0.8)	80 (0.6)	130 (0.8)	127 (0.7)
의료	86 (0.6)	42 (0.3)	98 (0.8)	130 (0.8)	222 (1.2)
운송업	98 (0.7)	116 (0.8)	98 (0.8)	109 (0.7)	88 (0.5)
가사	153 (1.1)	152 (1.1)	168 (1.3)	180 (1.1)	270 (1.5)
예술/연예	32 (0.2)	46 (0.3)	43 (0.3)	49 (0.3)	62 (0.3)
어업	39 (0.3)	45 (0.3)	29 (0.2)	38 (0.2)	34 (0.2)
학생	80 (0.6)	105 (0.7)	123 (1.0)	241 (1.5)	368 (2.0)
직업 미상	1,241 (8.7)	1,190 (8.4)	1,382 (11.0)	1,695 (10.6)	1,805 (10.0)
기타	6,346 (44.6)	5,997 (42.5)	4,951 (39.3)	6,076 (37.9)	6,292 (34.9)

[표 10]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연도 직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383	1,475	1,467	1,804	2,198
무직	423	460	438	595	788
농업	384	406	351	336	465
도소매업	5	3	2	8	4
유흥업	1	1	0	10	0
서비스업	7	27	17	12	18
금융/증권	1	0	0	0	0
부동산업	2	1	2	1	0
노동	18	27	27	21	24
회사원	27	34	36	46	28
공업	2	4	3	6	1
건설	1	10	2	4	11
의료	30	12	22	32	22
운송업	4	9	10	6	8
가사	61	60	63	71	111
예술/연예	0	0	2	4	0
어업	4	3	3	2	12
학생	3	2	1	4	35
직업 미상	50	63	61	153	124
기타	360	353	427	493	547

[표 11]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연도 직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1,396	10,921	9,613	11,611	12,640
무직	3,400	3,245	2,996	3,744	4,268
농업	49	39	37	41	61
도소매업	100	86	51	73	41
유흥업	72	119	94	108	108
서비스업	127	128	143	157	162
금융/증권	17	15	17	8	25
부동산업	33	27	25	15	22
노동	386	460	335	487	543
회사원	395	393	403	512	667
공업	120	209	99	180	247
건설	62	93	70	113	103
의료	55	30	76	96	196
운송업	81	103	77	91	71
가사	88	81	100	100	143
예술/연예	7	14	16	19	13
어업	32	40	23	35	16
학생	50	66	73	140	191
직업 미상	1,075	932	1,140	1,300	1,376
기타	5,247	4,841	3,838	4,392	4,387

[표 12]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연도 직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435	1,727	1,533	2,629	3,212
무직	282	368	319	633	770
농업	43	42	38	29	27
도소매업	5	7	10	12	11
유흥업	8	11	10	33	18
서비스업	25	29	15	56	51
금융/증권	0	0	4	5	9
부동산업	3	9	5	3	3
노동	42	47	45	80	124
회사원	70	95	95	165	267
공업	20	20	24	20	30
건설	9	15	8	13	13
의료	1	0	0	2	4
운송업	13	4	11	12	9
가사	4	11	5	9	16
예술/연예	25	32	25	26	49
어업	3	2	3	1	6
학생	27	37	49	97	142
직업 미상	116	195	181	242	305
기타	739	803	686	1,191	1,358

[표 13]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령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마약	39	116	84	101	247	1,550	61	2,198
	(1.8)	(5.3)	(3.8)	(4.6)	(11.2)	(70.5)	(2.8)	(100)
향정	196	2,896	3,449	3,204	1,996	562	337	12,640
	(1.6)	(22.9)	(27.3)	(25.3)	(15.8)	(4.4)	(2.7)	(100)
대마	78	1,481	983	294	180	120	76	3,212
	(2.4)	(46.1)	(30.6)	(9.2)	(5.6)	(3.7)	(2.4)	(100)

[표 14]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령 년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6	121	1,842	3,526	4,496	2,659	1,378	192	14,214
	(0.9)	(13.0)	(24.8)	(31.6)	(18.7)	(9.7)	(1.3)	(100)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표 15]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령 년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6	2	37	57	114	230	918	25	1,383
	(0.1)	(2.7)	(4.1)	(8.3)	(16.6)	(66.4)	(1.8)	(100)
2017	0	42	85	112	223	990	23	1,475
	(0.0)	(2.8)	(5.8)	(7.6)	(15.1)	(67.1)	(1.6)	(100)
2018	2	65	71	103	236	961	29	1,467
	(0.1)	(4.4)	(4.8)	(7.0)	(16.1)	(65.5)	(2.0)	(100)
2019	3	99	139	107	237	1,098	121	1,804
	(0.2)	(5.5)	(7.7)	(5.9)	(13.1)	(60.9)	(6.7)	(100)
2020	39	116	84	101	247	1,550	61	2,198
	(1.8)	(5.3)	(3.8)	(4.6)	(11.2)	(70.5)	(2.8)	(100)

[표 16]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령 년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6	91	1,401	3,060	4,094	2,228	373	149	11,396
	(0.8)	(12.3)	(26.8)	(35.9)	(19.6)	(3.3)	(1.3)	(100)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1.1)	(15.8)	(26.2)	(31.0)	(20.0)	(4.0)	(1.8)	(100)
2019	167	2,255	3,239	3,123	2,092	403	332	11,611
	(1.4)	(19.4)	(27.9)	(26.9)	(18.0)	(3.5)	(2.9)	(100)
2020	196	2,896	3,449	3,204	1,996	562	337	12,640
	(1.6)	(22.9)	(27.3)	(25.3)	(15.8)	(4.4)	(2.7)	(100)

[표 17]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령 년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6	28	404	409	288	201	87	18	1,435
	(1.9)	(28.1)	(28.5)	(20.1)	(14.0)	(6.1)	(1.3)	(100)
2017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8)	(34.2)	(26.4)	(17.8)	(9.3)	(7.5)	(2.0)	(100)
2018	36	531	403	223	192	107	41	1,533
	(2.3)	(34.6)	(26.3)	(14.5)	(12.5)	(7.0)	(2.7)	(100)
2019	69	1,167	748	257	225	97	66	2,629
	(2.6)	(44.4)	(28.5)	(9.8)	(8.6)	(3.7)	(2.5)	(100)
2020	78	1,481	983	294	180	120	76	3,212
	(2.4)	(46.1)	(30.6)	(9.2)	(5.6)	(3.7)	(2.4)	(100)

[표 18]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2016~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구분 연령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6	642	741	9,397	1,999	1,276	159	11,315	2,899
	(46.4)	(53.6)	(82.5)	(17.5)	(88.9)	(11.1)	(79.6)	(20.4)
2017	714	761	8,895	2,026	1,493	234	11,102	3,021
	(48.4)	(51.6)	(81.4)	(18.6)	(86.5)	(13.5)	(78.6)	(21.4)
2018	715	752	7,812	1,801	1,367	166	9,894	2,719
	(48.7)	(51.3)	(81.3)	(18.7)	(89.2)	(10.8)	(78.4)	(21.6)
2019	926	878	9,258	2,353	2,283	346	12,467	3,577
	(51.3)	(48.7)	(79.7)	(20.3)	(86.8)	(13.2)	(77.7)	(22.3)
2020	1,045	1,153	9,615	3,025	2,833	379	13,493	4,557
	(47.5)	(52.5)	(76.1)	(23.9)	(88.2)	(11.8)	(74.8)	(25.2)

[표 19]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2020년)[단위: %]

마약류 범행 장소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41.5	28.1	27.5	29.6
강변	0.0	0.0	0.2	0.0
공장	0.1	0.3	0.4	0.3
공항	0.5	2.8	5.6	3.0
노상	3.1	14.2	20.2	13.9
농가 및 축사	23.6	0.2	0.4	3.0
농경지	9.3	0.0	0.4	1.2
부두	0.0	0.2	0.0	0.1
사무실	0.7	2.8	1.7	2.3
상가	0.8	2.3	1.7	2.1
선박	0.0	0.1	0.1	0.1
숙박업소	1.1	13.4	4.2	10.4
야산	0.5	0.0	0.4	0.2
유흥업소	0.2	3.3	2.6	2.9
자동차	0.6	4.1	5.0	3.8
항공기	0.1	0.3	0.5	0.3
해변가	0.0	0.0	0.0	0.0
기타	17.6	27.8	29.2	26.8
합계	100	100	100	100

[표 20]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 행위 등 대상 환각물질

○ 대상 환각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

- ①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② 동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③ 부탄가스
- ④ 아산화질소

○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 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표 21]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단속현황

구분 연도	건수	인원
2018	262	386
2019	226	309
2020	185	349

[표 22]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 지역별 현황(2018~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도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386	309	349
	(100)	(100)	(100)
서울	128	91	139
	(33.2)	(29.4)	(39.8)
인천·경기	171	123	131
	(44.3)	(39.8)	(37.5)
부산	8	6	16
	(2.1)	(1.9)	(4.6)
울산·경남	13	16	6
	(3.4)	(5.2)	(1.7)
대구·경북	14	10	9
	(3.6)	(3.2)	(2.6)
대전·충남	12	12	6
	(3.1)	(3.9)	(1.7)
강원	12	7	6
	(3.1)	(2.3)	(1.7)
전북	4	8	2
	(1.0)	(2.6)	(0.6)
광주·전남	13	17	14
	(3.4)	(5.5)	(4.0)
충북	1	3	3
	(0.3)	(1.0)	(0.9)
제주	0	5	1
	(0.0)	(1.6)	(0.3)
외국	0	0	0
	(0.0)	(0.0)	(0.0)
불상	10	11	16
	(2.6)	(3.6)	(4.6)

[표 23]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 직업별 현황(2018~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도 직업	2018	2019	2020
합계	386 (100)	309 (100)	349 (100)
무직	157 (40.7)	159 (51.5)	166 (47.6)
농업	0 (0.0)	2 (0.6)	0 (0.0)
도소매업	1 (0.3)	2 (0.6)	1 (0.3)
유흥업	7 (1.8)	5 (1.6)	8 (2.3)
서비스업 (요식업, 노점 등)	7 (1.8)	4 (1.3)	2 (0.6)
금융/증권	0 (0.0)	0 (0.0)	1 (0.3)
부동산업	0 (0.0)	0 (0.0)	0 (0.0)
노동 (용역)	11 (2.8)	15 (4.9)	10 (2.9)
회사원	4 (1.0)	6 (1.9)	9 (2.6)
공업	0 (0.0)	0 (0.0)	0 (0.0)
건설	2 (0.5)	0 (0.0)	3 (0.9)
의료	0 (0.0)	0 (0.0)	2 (0.6)
운송업	2 (0.5)	2 (0.6)	1 (0.3)
가사	0 (0.0)	0 (0.0)	0 (0.0)
예술/연예	1 (0.3)	0 (0.0)	0 (0.0)
어업	0 (0.0)	0 (0.0)	0 (0.0)
학생	31 (8.0)	27 (8.7)	23 (6.6)
직업 미상	0 (0.0)	6 (1.9)	15 (4.3)
기타	163 (42.2)	81 (26.2)	108 (30.9)

[표 24]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 연령별 현황(2018~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연령 연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미상	합계
2018	20	93	147	66	43	17	0	386
	(5.2)	(24.1)	(38.1)	(17.1)	(11.1)	(4.4)	(0.0)	(100)
2019	5	50	143	43	54	9	5	309
	(1.6)	(16.2)	(46.3)	(13.9)	(17.5)	(2.9)	(1.6)	(100)
2020	2	29	202	56	44	10	6	349
	(0.6)	(8.3)	(57.9)	(16.0)	(12.6)	(2.9)	(1.7)	(100)

[표 25] 환각물질 흡입 사범 성별 현황(2018~2020년)[단위: 명, ()는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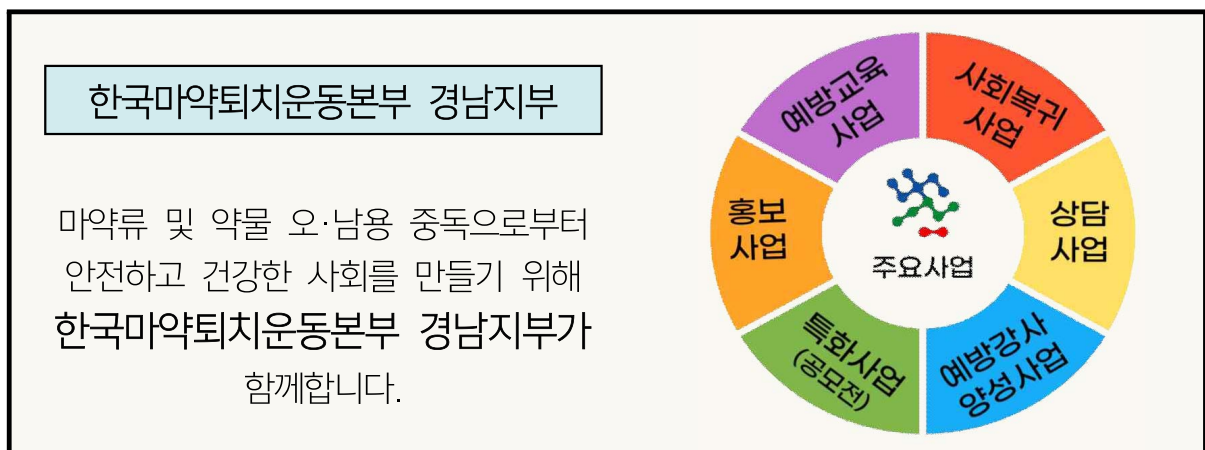
성 연도	남	여	합계
2018	244 (63.2)	142 (36.8)	386 (100)
2019	204 (66.0)	105 (34.0)	309 (100)
2020	206 (59.0)	143 (41.0)	349 (100)

5.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도움 기관

○ 도움 기관

기관	주요 업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전화 : 전국 1899-0893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홈페이지 : www.drugfree.or.kr	■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 등 지역사회 대상 예방 교육 -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 마약류 퇴치 홍보사업 - 캠페인, 공모전, 회보 발간 ■ 사회복귀 사업 - 보호관찰소 마약류 사용자 재범 방지 법정 의무교육 -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 상담 - 약물 오·남용 관련 상담 - 중독 전문 상담 및 심리 상담 - 가족 상담 ■ 치료정보 제공 및 자조 모임 안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	
•상담/전화 : 055-287-9993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808호 •홈페이지 : www.drugfree.or.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상담/전화 : 051-851-8990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5 해성빌딩 2층 •홈페이지 : www.drugfree.or.kr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상담/전화 : 055-536-6440~3 •주소 : 경남 창원군 부곡면 부곡로 145 •홈페이지 : www.bgnrh.go.kr	■ 물질중독환자 진단 및 상담 ■ 단약자조모임(NA) 운영 ■ 중독 치료 병동 운영 -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 물질남용에 따른 합병증 교육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 소개



6. 약물중독 예방 Q&A⁵⁾

Q 한 번으로 중독이 되진 않는다?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심이나 구토, 어지러움, 들뜬 기분 등을 느끼지만 사용 빈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쾌감이나 환각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영원히 유혹하게 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급격히 중독됩니다.

Q 약물을 남용하는 것은 병이 아니다?

A 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더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빠져들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약이란 말 그대로 악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과 아픔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약물남용은 질병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적 질병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것만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과 사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Q 필로폰을 하면 살이 빠질까요?

A 필로폰은 일종의 각성제로서 피로감을 줄여주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 하게 하며 일시적인 집중력을 강화하며 다행감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용들은 일시적이며 효과가 사라지면 평소보다 기분이 더욱 침체되고 우울해지며 의욕도 없어지고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며, 식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필로폰이 억지로 뇌에 작용하여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배출을 증가시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효가 사라지면 반동 현상으로 억지로 만들어 낸 변화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나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필로폰을 찾게 되어 결국 필로폰 없이는 생활을 못 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필로폰 공급자들은 중독자들을 만들기 위해 주부나 회사원, 운전기사, 학생을 현혹하여 처음에는 무료로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 의존성이 생기면 비싼 값에 팝니다. 참으로 교묘하고 잔인한 상술입니다. 애초부터 필로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건전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출처: 약물남용 예방 교육 강사 지도안(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Q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면 뇌가 손상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 본드를 포함하여 각종 흡입제는 톨루엔이나 크실렌 등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물질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반복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뇌파의 변화를 초래하고, 뇌 기능이 손상되면 감각 이상과 운동실조증이 생겨 감각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에 따른 움직임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하고, 언어구사력과 사고력에도 장애가 생기며, 자기파괴적이 되고 잘 참지 못하며 쉽게 흥분하는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정신병 증상과 치매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축적이 되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대마는 담배와 비슷한데 왜 금지하는지요?

A 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 배나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두뇌의 신경세포 속의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므로 뇌 기능을 손상합니다. 또한 생식기능을 통제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어, 정자의 수를 줄이고 성장발육이나 신체적 발달을 저해합니다. 여자에게는 미성숙한 난자를 생산하게 하고 미숙아를 낳거나 염색체 손상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 있고 불임을 유발합니다.

Q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사용한다면 단지 나 자신에 해가 될 뿐 타인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구든지 약물 남용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획

심현호	경상남도 체육예술건강과 과장
이인숙	경상남도 체육예술건강과 사무관
최은영	경상남도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검토

김대규	경상남도경찰청 마약수사대 대장
박미경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박정희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



집필 및 편집

강지영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무경	경상고등학교 교사
문지훈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
박성자	진주중학교 교사
황윤희	창원경일고등학교 교사



발행일

2021. 11.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